

석 사 학 위 논 문

충남 연기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류 준

지도교수 한 영 목

2006 年 2 월

충남 연기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지도교수 한 영 목

이 논문을 문학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5 年 10 月

충 남 대 학 교 대 학 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류 준

柳濬의 文學碩士學位
請求論文을 認准함

2005 年 12 月

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忠南大學校 大學院

ABSTRACT *

← 대문자

↑

4행

↓

A Phonological Study on Yeongi Dialect

↑

3행

↓

Jun Ryu

↑

4행

↓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

2행

↓

(Supervised by Professor Yeong-Mok Han)

↑

4행

↓

Since World War II, Joseph Conrad has attracted many readers and critics. The postwar generation began to reevaluate his works. Conrad's characters are surrounded by hostile universe of chaos and confusion

↑

2행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a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Doctor of Philosophy) conferred in August 2005.

(행간을 띄우지 않으며, 영문초록 첫페이지 하단에 찍은 것)

	충남 연기 지역 어의 음운론적 연구 류 준 2006년	..
--	---	----

목 차

제1장 서론	1
1.1. 연구 목적	1
1.2. 조사 방법	2
1.3. 충남 방언 연구사	3
1.4. 조사 지역개관	5
 제2장 음운 체계	8
2.1. 자음 체계	8
2.2. 모음 체계	9
2.3. 화음 체계	11
 제3장 자음의 음운 현상	13
3.1. 평파열음화	13
3.2. 경음화	14
3.3. 유기음화	17
3.4. 음절말 자음군 단순화	19
3.5. 구개음화	22
3.6. 유성음화	25
3.7. 마찰음화	26
3.8. 유음화	27
3.9. 자음 첨가	29
3.10. 자음 탈락	30
3.11. 중간 자음 유지 현상	32
 제4장 모음의 음운 현상	34
4.1. 모음 상승	34
4.2. 움라우트 현상	38
4.3. 원순모음화	42
4.4. 비원순모음화	44
4.5. 단모음의 이중모음화	46
4.6.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48

4.7. 모음 탈락	53
제5장 결론	55
참고 문헌	58
ABSTRACT	65
부록(자료집)	68

제1장 서론

1.1. 연구 목적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환경의 차이로 인해 달리 나타나게 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동일 계통의 언어라 할지라도 공간적인 거리나 주변 상황의 차이로 말미암아 각기 다른 언어로 분화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의 분화는 인간이 언어를 쓰기 시작한 수천 년부터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언어의 분화에 의한 언어의 차이는 인간의 집단·민족·국가 등을 구별하는 가장 큰 요건이 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한국어를 사용하는 언어 사회에 살면서도 지역에 따른 언어 분열을 의식하게 된다. 한 언어가 지역에 따라 분열되어 나타나는 각 언어들을 방언(dialect)이라고 부르는데, 방언이란 하나의 공통어에서 분열하여 오랜 시일 흐르는 사이에 각 지방으로 독자적인 발달을 이루게 되고, 다른 지방의 언어와 차이(음운, 문법, 어휘, 억양 등)가 있게 된 그 결과이다(한국방언학회편 1973:10).

우리말 방언 연구는 크게 동남 방언, 서남 방언, 중부 방언, 동북 방언, 서북 방언, 제주 방언권을 설정한 대단위 방언권에 대한 논의에서, 좀더 세분한 각도별 방언의 음운, 어휘, 형태, 통사, 의미, 나아가 구획 등에 대한 현상으로 고찰해 왔다. 앞으로 방언 연구는 사라져 가는 우리말의 보존과 기록의 연구라는 측면에서, 군이나 면 단위 지역어에 대한 정밀한 기술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실 충남 방언의 기저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은, 다른 방언권과 마찬가지로 다양하면서도 특이한 현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교육, 매스컴, 교통의 발달은 충남 방언의 고유한 자질을 점차 소멸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충남 방언의 한 하위 방언으로서의 연기 지역어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지역어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는 공시적이든

통시적이든 주로 다른 방언과의 차이를 보이는 특징적인 현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국어의 한 하위 방언으로서 가지는 전체적인 모습이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논문은 충남 방언의 한 하위 방언인 연기 지역어를 대상으로 하여, 하나의 완결된 언어로서 지니는 공시적인 음운 과정을 전반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영목(1999:16)은 전북, 충북과 충남 방언의 어휘를 비교해 볼 때, 충남 방언은 남쪽과 북쪽 그리고 해안과 내륙의 동서로 나누어 들어선 설정을 주장하여 충남 방언의 하위방언권을 (1)과 같이 세분할 수 있음을 밝혔다.

(1) 1지역 : 대전, 연기, 논산, 금산, 부여, 공주, 천안

2지역 : 서천, 보령, 홍성, 서산, 태안

3지역 : 당진, 예산, 청양, 아산

이 논문의 대상어인 연기 지역어는, 1지역(지도1 참조)에 속하고 충남 방언권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그 동안 연기 지역어가 이렇다 할 특색이 없다는 이유로 독자적이고 심층적인 조사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연기 지역어는 충남 방언권의 중앙에 위치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전라 방언과 경기 방언이 혼효되는 중간 지점에 자리한다는 점에서도, 한국 방언학·언어 사회학적으로도 연구 가치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연기 지역어에 대한 음운체계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시적 음운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연기 지역어의 음운론적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1.2. 조사 방법

이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는 언어는 이 지역 토박이 노년층 화자의 것들로 주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름	성별	나이	거주지	학력	직업
류석신	남	79	연기군 금남면 금천리	소학교	농업
윤 임	여	73	연기군 금남면 금천리	무학	농업

이 지역은 필자의 출생지이고 성장한 곳으로 현재에는 큰댁이 있는 곳이다. 큰댁에 자주 왕래하면서 자연 발화를 녹음하여 두었고 본격적인 조사는 2004년 12월 한 달 동안 이루어졌다.

조사 방식은 조사 지역을 자주 왕래하며 제보자들과 나눈 자유로운 대화와 설화 등을 청취하며 녹음 기록하는 자연 채취 방법을 택하였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같은 지역에서 사셨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 또 이미 조사된 설화 자료도 함께 조사하여 활용하였다.¹⁾

1.3. 충남 방언 연구사

충남 방언은 중부 방언과 서남 방언의 영향을 주로 받고, 나아가 동남 방언과 영동 방언에서 간접적으로 개신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개신 요인들로 충남 방언의 독자성에 대한 의문이 일찍이 제기되었다(小倉進平 1944, 河野六郎 1945). 이로 인하여 충남 방언의 연구는 다른 방언권보다 영성하고, 특히 음운론에 비하여 통사론은 문법, 특히 조사, 어미, 보조 용언 등에 대한 논의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어 방언의 초창기였던 小倉進平(1944)과 河野六郎(1945)에서는 충남방언을 각각 경기도 방언과 中鮮 방언에 포함시켜 충남 방언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후 이병근(1967), 전광현(1979), 김충희(1984) 등에서도 충남 방언을 중부 방언의 일부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도수희(1965)에서 충남 방언의 독자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 이래 김형규(1972), 도수희(1977)에서 충남 방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후 이에 대한 정밀 작업으로 성낙수(1973),

1) 이 논문에 활용한 보조 자료는 연기군지(2005), 조치원문화원(1992)의 연기민속과 한영목(1999), 황인권(1999) 충남 방언 자료 등이다.

최영희(1982), 한영목(1983, 1987), 김정현(1983), 김시중(1985), 황인권(1999), 김정태(2003) 등이 더욱 발전시켰다. 이로써 충남 방언의 독자성은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한영목 1999:62).

충청남·북도 방언에 대한 김형규(1972)의 음운론적인 연구에 이어, 도수희(1977, 1981)에서는 충남 방언의 모음 변이와 움라우트 등의 현상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졌다. 충남 방언의 특징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가 도수희(1987)에서 시도되었고, 한영목(1987)에서는 면 단위까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충남 방언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자료를 소개하였다. 한영목(1991)에 이어, 한영목(1998)에서 충남 방언의 연구사, 방언 구획, 음운론, 어휘론, 통사론의 특징을 전반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충남의 광역별 지역어 연구로는, 박광호(1983)의 충남 북부 지역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와 이원직(1996)의 충남 서부 지역어의 모음 변화에 이어, 이원직·허삼복(1996)의 같은 지역어의 자음군 단순화에 대한 논의가 있다. 성희제(2000)에서 충남 방언의 움라우트 현상 유형에 대한 논의와 최명옥·한성우(2001)에서 충남 방언의 음운론의 성격에 대하여 기술한 바 있다.

충남 시·군 단위 지역어의 음운 현상에 대한 논의는 곽충구(1982)에서 아산지역어의 이중 모음화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졌다. 금산 지역어에 대한 논의는 한영목(1983, 1987, 1997)에 의하여 음운론적인 면에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고, 전병철(1997)에서 음운 현상에 대한 사회 언어학적 논의가 시도되었다. 대전 지역어에 대한 음운 연구는 박영환(1986), 정원수(1999)에서, 사회 방언 연구는鈴木潤(1995), 김영진(1998)에서 시도되었다.

공주 지역어는 서금덕(2000)에서, 황인권(2002)에서 홍성 지역어에 이어, 서천 지역어는 홍윤표(1991), 이재춘(1998)에서 19세기 서천말과 황인권(2004)에서, 예산 지역어는 김원중(1988), 최태영(1989) 등에서 음운론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당진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도 전익진(1993), 한성우(1996)에서, 태안 지역어의 운율 연구가 정원수(2002)에서 논의되었다. 그리고 천안 지역어의 음운론적 논의는 김정태(2002, 2003)에서 기술되었다.

충남의 면 단위별 음운 연구는, 류구상(1970)에서 천안시 병천 지역어를, 보

령시 웅천 지역어에 대한 논의는 황인권(1987, 1990)에 의하여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조성미(1996)에서도 보령시 주포 지역어를, 권미영(1998)에서는 논산시 강경 지역어에 대한 논의가 시도되었다. 나아가 황인권(1991)의 보령 지역어와 김시중(1996)의 청양 지역어, 그리고 전병철(1997)의 금산 지역어 등은 음운론적 연구로 박사학위 논문이 제출되었다.

충남 방언 대한 저서로 류구상(1996)에서 천안 지역어 연구와 금산 지역어는 한영목(2000口)에서 논의하였고, 성낙수(1993)에서 통사론 연구를, 황인권(1999)에서 충남 방언의 음운론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자료와 함께 제시한 바 있다. 한영목(1999ㄱ)에서 충남 방언의 자료와 개괄적 연구가 상재되어 문법론 분야에 대한 간단한 논의가 있다. 그리고 한영목(2003, 2004)에서 이문구 소설의 모음에 관한 논의도 있다. 다른 방언권에 비교할 때, 충남 방언의 문법론 분야의 통사론에 대한 논의는 극히 제한적으로 기술되고 있는 실정이다.²⁾ 특히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연기 지역어에 관한 논의는 군지나 민속지에 간단히 언급되었을 뿐, 본격적인 연구는 나타나지 않는다.

1.4. 조사 지역 개관

삼한시대에는 마한에 속하였고 백제가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할 때 연기에는 연 씨들, 전의에는 전 씨들이 활동하였다. 특히 연 씨의 연신, 연들은 백제의 병관좌평까지 오른 인물이다. 연기, 전의는 백제의 왕도 웅진과 가까이 있기에 이곳을 지키는 역할로 많은 성을 쌓았고 그러기에 연기의 산에는 당시 축조되었던 성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660년 의자왕이 항복하고 31년 간 백제 유민이 부흥운동을 전개 할 때 연기 지역의 성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결국 백제가 멸망하였고 백제 유민들은 역대 왕에 대한 추모제례를 전의에 있는 다방리에 절을 지어 매년 4월 15일 대제를 거행하였으니 그것이 오늘날 백제 대제이다.

왕건이 고려 건국시 삼한 통일에 박차를 가할 때 금강을 건너 공주의 견훤과 싸움을 벌이기 위하여 금강에 도착하니 7월 장마로 물이 불어 건널 수 없

2) 충남 방언 연구사에 대한 논의는 한영목(1998, 1999ㄱ, 2003)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게 되자 이치는 죽음을 무릅쓰고 왕건을 건너 준다. 이때의 공으로 이름을 하사 받아 이도(李棹)라 부르고 전의 이 씨 시조가 되었으며 전의 남쪽성에 거주하였다 하여 이곳을 이성(李城)이라 부른다. 고려시대에는 몽고의 침략이 이어져 나라가 위태로울 때 연기에서 몽고 적을 물리치니 이것이 연기대첩이다. 조선시대 임진왜란시 연기, 전의 출신 인물들은 의병에 가담하여 왜군을 맞아 싸웠으며 근대에는 6·25전투가 전의 개미고개 금남의 금강방어 전투로 이어져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연기군은 결국 고대 웅진을 지키기 위한 지리적 위치에서 한반도의 남쪽을 방어하기 위한 요충지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연기군의 구성은 연기와 전의 그리고 금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연기는 백제시대 두인지현(豆仍只縣)이었고 통일 신라 시대 연산군에 속한 연기현(燕岐縣)이라 하였다. 전의는 백제 때 구지현(仇知縣)이었고 통일 신라 시대에 금지(金池-金地) 하였으며 고려 시대 전의현(全義縣)이라 하였다. 조선 태조 4년(1395년) 전의에 감무를 두었으며 태종 6년(1406년)에는 연기도 따로 감무를 두었다. 태종 14년(1414년)에는 연기와 전의를 합병하여 전기현(全岐縣)으로 하였다가 태종 16년(1416)에 각각 환원하였다.

전의는 연산군 때 환관 김처선에 의하여 없어졌다가(1505년) 중종반정 때(1506) 다시 복직되었다. 또 연기는 숙종 6년(1680년) 읍인 만설의 모역벌주(謀逆伐誅)로 인하여 문의에 속하였으나 1685년 복구하여 연기현이 되었다.

고종 32년(1895년) 전국 지방 관제를 개정함에 따라 각각 군이라 칭하고 군수를 두게 되었으며 이때 연기군, 전의군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연기군과 전의군을 합하고 금강 건너 금남을 연기에 편입하였는데 이곳은 백제 때 웅진(熊津 : 熊川)에 속한 소비포현이었다. 고려 때는 공주에 속했다가 1914년 연기군에 편입되면서 금강의 남쪽에 있다하여 금남면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 후 약간의 변화에 의하여 현재 연기군은 1읍 7개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기군은 충청도의 동쪽에 위치하여 충청북도와 경계를 이루며 충청남북도로 보면 중앙에 위치한다. 연기군의 동쪽은 충청북도 청원군과 도계(道界)를 이루고 있고 북쪽은 천안시와 경계, 서쪽은 공주시와 남쪽은 대전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지도2 참조). 이들 주변의 커다란 도시로 인하여 연기군은 경제, 문화, 역사면에서 그리 크게 부각 되지 않고 있으며 생활권마저 이들 큰 도시의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연기군의 주변도시와 생활권을 연결 지어보면 소정, 전의는 천안시와

생활권이 연결되어 있고 조치원, 동면은 청주와 연결되어 시내버스들이 운행되고 있다. 금남은 대전시와 남면, 서면은 공주시와 생활권이 연결되어 있으며 거리상으로 볼 때 대전은 45km 공주가 25km 청주가 20km 정도이고 서울과는 114km 이내이다.

연기군은 어느 지역보다 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소위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통망은 연기군을 관통하여 전국으로 연결되어 있다. 국도 1호선과 철도의 경부선이 지나고 충북선 철도의 시발점이며, 경부·중부고속도로와 인접하고 고속철도가 연기군을 관통하여 소위 사통팔달을 이루고 있다. 조선시대 가장 복잡한 거리인 아홉거리(‘구거리’라고 하며 아홉 갈래의 길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가 있는 곳이 연기군이다.

미호천과 금강이 흘러 용수가 풍부하고 산은 높지 않아 목야지, 과수원으로서 농산물의 재배에 적당하다. 온도는 연평균 12.4℃로 한서의 차이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극심한 편이 아니다

이러한 지형적 특징과 교통의 요건, 기후 등은 연기군 지역어 특징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여 언어 연구의 저해 요인과 용이함을 함께 주고 있다.



[지도1]



[지도2]

제2장 음운 체계

2.1. 자음 체계

연기 지역어에 있어서 자음의 음성적 실현은 중부 방언과 별 차이 없이 나타난다. 음운적으로 대립되는 자음들로 연기 지역어에 사용된 예를 보이면 다음 (2)와 같다.

- (2) ㅂ/p / : [바우](바위), [바쿠이](박귀), [베룩](벼룩), [벤덕](변덕), [보십](보습)
 ㅃ/p' / : 빼, 뽀, [빼꼭새](빼꾸기), [뽀구](뽀기)
 ㅍ/p^h / : [펜지](편지), [퍼대기](포대기), [평상](평생), 피라미
 ㄷ/t / : [달갈](달걀), [데런님](도런님), [두드레기](두드러기), [들먹다](털먹다)
 ㄸ/t' / : [딸그](딸기), 뽀다, [떡기다](뜯기다), [뽀베기](뽀부기)
 ㅌ/t^h / : [테침](퇴침), [티밥](튀밥), [테끼](토끼), [틱베리](특별히)
 ㄱ/k / : [개볶다](가볍다), [가새](가위), [그집말](거짓말), [곡석](곡식)
 ㄲ/k' / : [깁베기](깁부기), [꽤](깨), [깁줄](깁질), [깨까시](깨끗이)
 ㅋ/k^h / : 컬레, [콧시엄](콧수염), [치](키)
 ㅈ/c / : [잡뱅이](잡방이), [자시](자세히), [저범](젓가락), [지병](지붕)
 ㅉ/c' / : [절루꼴](절레꽃), [죄금](조금), 집게, [절기다](질기다)
 ㅊ/c^h / : [참패](참깨), [처매](처마), [춘춘히](천천히), [춤](처음)
 ㅅ/s / : [사마구이](사마귀), [삭쟁이](삭정어), [삼](쌈), [소죽](쇠죽)
 ㅆ/s' / : [쓰레](써레), [써러지다](쓰러지다), [썰데업는](쓸데없는)
 ㅎ/h / : [한심](한숨), [흔집](헌집), [화리](화로), 흔떡, [흥겁](형겁)
 ㅁ/m / : [매디](마디), [마실](마울), [모리](모레), [무수](무), [모이](묘)
 ㄴ/n / : 넛, [늑비이불](누비이불), [니](늑), [늑에](누에), [느집](너희 집)
 ㅇ/ŋ / : [아수](아우), [열세](열쇠), [엔손](원손), [영](이영), [위디](어디)
 ㄹ/r / : [마로](마루), [무름](무릎), [뽀루](무엇으로), [뽀지울](뽀기울)

위의 음운 체계 중 /ㄹ/과 /ㅇ/은 어두에 올 수 없고 어중 어말의 위치에만

나타난다. 또한 파열음들은 위치하는 환경에 따라 실현되는 다른 음성형을 찾을 수 있다. 즉 ‘부부’에 있어 첫 음절의 /ㅍ/과 둘째 음절의 모음 사이의 /ㅍ/은 실현 방법이 달라 전자를 무성음 ‘[p]’로 후자를 유성음 ‘[b]’로 설정하나, 유성음 [b]는 의미 분화를 시키지 못하기에 무성음 /ㅍ/의 변이음으로 나타난다. ‘다리’의 [t]와 ‘노다지’의 [d], ‘가지’의 [k]와 ‘사기’의 [g]도 동일하다. 파찰음의 무성음 /ㅈ/이 유성음간에서 실현되는 유성음 [j]도 변이음이다.

/ㄴ/이 모음 [ㅣ]나 과도음 [y](yo ㅕ, yu ㅠ, yə ㅋ, ya ㅓ 등에 쓰인 반모음 또는 활음)에 선행할 때는 구개음화한 변이음 [ɲ] (“니, 너”의 ㄴ)로 실현되나 역시 [n]과 변별성은 없다. /ㅎ/, /ㄹ/의 변이음들도 의미 분화를 시키지 못하기에 음운 체계에서 제외시켰다. 이상에서 보인 바와 같이 변별적인 대립으로 의미 분화를 일으키는 것을 대상으로 (3)와 같이 연기 지역어의 자음 체계를 설정하였다.

(3) 자음체계

ㅍ/p/	ㅌ/t/	ㅈ/c/	ㅋ/k/
ㅍ/p ^h /	ㅌ/t ^h /	ㅈ/c ^h /	ㅋ/k ^h /
ㅍ/p’/	ㅌ/t’/	ㅈ/c’/	ㅋ/k’/
	ㅅ/s/		ㅎ/h/
	ㅅ/s’/		
ㅁ/m/	ㄴ/n/		ㅇ/ŋ/
	ㄹ/r/		

2.2. 모음 체계

연기 지역어에서 사용되는 단모음은 변별적 대립을 가지는 중부 방언의 10개 단모음 체계와 같이 실현된다.

- (4) ㅣ /i/ : [지미](기미), [부시럼](부스럼), [미기](메기), [모십](모습)
 ㅐ /e/ : [글페](글피), [누데기](누더기), [데런님](도런님), [메누리](며느리)
 ㅓ /ɛ/ : [개금](개암), [꽤매기](꽤과리), [널](내일), [매디](마디)
 ㅜ /ü/ : [늪에](누에), [쉬염](수염), [취기다](숙이다), [시늪](시누이)
 ㅛ /ö/ : [괴기](고기), [회요리바람](회오리바람), [취기다](숙이다)
 ㅡ /i/ : [딸그](딸기), [버듬](버짐), [그짐말](거짓말), [등치](덩치), [뜯다](뺏다)
 ㅜ /ə/ : [버개](베개), [건거니](반찬), [번전](분전), [씨럼](씨름)
 ㅏ /a/ : [가새](가위), [가름배](가름마), [갈](가을), [동상](동생)
 ㅗ /u/ : [방구](방귀), [빨구](빨기), [사우](사위), [마운](마흔)
 ㅘ /o/ : [몬지](먼지), [소시랑](쇠스랑), [손꼬락](손가락)

이돈주(1978)와 최명옥(1982)에 의하면 ㅐ/e/와 ㅓ/ɛ/가 중화된 [E]로 전남 방언과 동남 방언에서는 기술하고 있으나 연기 지역어에서는 /e/와 /ɛ/는 충분히 변별성이 있다. 물론 /e/가 상당수 /i/로 고모음화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음운 변화의 추이에 불과하다. 다만 「~까」형의 ‘~하니까/hanik’ɛ/, ~그러니까/kiranik’ɛ/’ 등에 한해서 화자에 따라 /e/와 /ɛ/가 혼용되고 있다. 이 경우 [E]음을 설정할 수 있으나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한영목, 2000:17) 이렇게 /e/와 /ɛ/가 음운층에서는 대립하나, 음성층에서는 대립하지 못하고 /E/로 중화된 것은 조음 시에 혀의 최고점이 전설에 형성되고, 좁힘점도 전설 경구개에 형성되는 등 유사함에 기인한다고 본다. 김정태(2003:63)에서 ‘e → i’로 나타나고 본래 /ɛ/였던 것에서는 ‘ɛ → i’가 실현되지 않는 점은 음성층에서는 /e/와 /ɛ/가 대립을 상실하고 있음에도 음운으로는 /e/와 /ɛ/가 여전히 변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ㅜ/와 /ㅛ/는 /u/와 /o/의 음라우트인 /ü/와 /ö/로 젊은층에서 단모음으로 나타나지만 노년층에서는 대부분 이중모음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화자에 따라서는 [ü]와 [ö]의 원순성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어 ‘열쇠/yəlse/, 퇴침/t^hec^him/로 발음되거나, (5)a처럼 단모음으로 후설 원순성을 유지하기도 한다. 그러나 (5)b처럼 여전히 이중모음 /oy/, /uy/로 발음되는 경우가 나타난다. 물론 많은 어휘가 /ü/와 /ö/로 발음되지만 (5)b와 (5)c처럼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를 보면

연기 지역어는 완전히 단모음화되지는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5)a. [sojukː](쇠죽), [osamc^hun](외삼촌), [oyaŋk'an](외양간)
 [kut'ɛgi](귀때기), [kušin](귀신), [tuji](뒤지), [paŋgu](방귀)
 b. [oygatːc'ipː](외갓집), [oyda](외다), [coy](쇠), [hoiɥ](회의), [uy](위)
 c. [k'eybyəŋ~k'oybyəŋ](꽤병), [moc'ari~moyc'ari](뿔자리),
 [kü~kuy](귀), [pak^hu~pak^huy](마귀), [samagu~samaguy](사마귀)

따라서 연기 지역어의 단모음은 (6)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6) 연기 지역어의 모음 체계

ㅣ /i/	ㅅㅣ /ü/	ㅡ /ɨ/	ㅓ /u/
ㅔ /e/	ㅕㅔ /ö/	ㅚ /ə/	ㅗ /o/
ㅚ /ɛ/		ㅓ /a/	

2.3. 활음 체계

활음(glide)은 모음으로도 자음으로도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발음기관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움직여서 형성되는 음을 말한다. 즉 기식의 장애가 거의 없이 산출되는 음으로 모음이 직접 선행하거나 후행해야만 실현되는 음이다. 이에는 /y/와 /w/로 표기하는 둘이 있는데 야[ya]와 와[wa]를 계속 발음하면 한 음절인데도 한 조음 지점에서 시작하여 다른 조음점에서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예들이 그러한 반모음들을 보여준다.

- (7) /y/ : [yal](열), [yasan](야산), [yəsʌ](여우), [yədəl](여덟)
 /w/ : [waŋjə](왕겨), [hwaŋgapː](환갑), [wəlma](얼마), [wənmaŋ](원망)

/y/와 /w/는 다른 모음과 결합하여 이중모음을 형성하게 되는데, 연기 지역어

에 나타나는 /y/계와 /w/계의 이중모음은 다음과 같다.

- (8) /ya/ : 야산, [오 양간](외양간)
- /yə/ : [여수](여우), [여그](여기)
- /yo/ : [요세](요즈음), [용구새](용마름)
- /yu/ : [유시](웃이), [줄](굴)
- /yɛ/ : [돼지울간](돼지우리), [꽤](깨)
- /ye/ : [옌날](옛날), {예순}(예순)
- /yi/ : [이웅감](영감), [이웅영](이영)
- /iy/ : [그이](게), [느이](너희)

- (9) /wa/ : [왕저](왕겨), [황갑](환갑)
- /wə/ : [월마](얼마), [위디](어디)
- /we/ : [퀘 짝](퀘), [페미](꾸미)
- /wɛ/ : 팽이, [팽매기](팽과리)
- /wi/ : [쉬염](수염), [늬비이불](누비이불)

(8)은 /y/계 이중모음의 예로, 연기 지역어에서는 상승이중모음 /ya/, /yə/, /yo/, /yu/, /yɛ/, /ye/, /yi/와 하향이중모음 /iy/ 등 8개 이중모음이 실현되고 있다. /yi/는 노년층에서는 [yɪŋgam](영감), [yɪŋ](이영), [yi:c^hi](여치) 등으로 발음하고 있으나 젊은 세대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9)는 /w/계 이중모음의 예로, 연기 지역어에서는 /wa/, /wə/, /we/, /wɛ/, /wi/ 5개 이중모음이 실현되고 있다. 그 중 /wi/는 단모음 /i/로 나타나지만 대체로 (5)에서와 같이 이중모음으로 발음된다. /위/는 상승이중모음 [wi]로 발음되기도 하고, 하장이중모음 [uy]로 발음되기도 한다. 이광호(1978:183)는 이중모음의 단모음화를 설명하면서 “이중모음 /wi/가 자음 아래 [w]가 탈락하여 /i/로 단모음화하는 경우와 /y/계 이중모음 [uy]도 /y/가 탈락하여 [u]를 남기는 어말 /u/형으로 변한다. 따라서 /wi/는 기저형을 /uy/로 잡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wi]가 [u]로 실현하는 경우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제3장 자음의 음운 현상

3.1. 평파열음화

평파열음화란 어간말에서 비음을 제외한 순수 자음이 그 위치에서나 어미초의 자음 앞에서 파열되지 않은 결과, 그것이 가진 음소의 특성을 잃고 ‘ㄷ, ㄸ, ㄱ’ 중의 어느 하나로 교체되는 것은 말한다. 이 경우에 파열음은 모두 계열의 평음, 즉 평파열음으로 실현되며 마찰음과 파찰음은 모두 치경 마찰음을 포함하는 치경음의 평파열음(‘ㄷ’)으로 실현된다(최명우·한성우, 2001:232). 연기 지역어에서 어말 위치에 나타나는 자음은 /ㅃ/, /ㄸ/, /ㄱ/, /ㅁ/, /ㄴ/, /ㅇ/, /ㄹ/의 일곱 개뿐이다. /ㅃ/, /ㅍ/, /ㅍ/는 /ㅃ/로 중화되고, /ㄸ/, /ㅌ/, /ㅈ/, /ㅊ/, /ㅈ/, /ㅈ/, /ㅈ/, /ㅈ/는 /ㄸ/로 중화하며, /ㄱ/, /ㅋ/, /ㄱ/는 /ㄱ/로 중화하여 이들이 변별적 대립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평파열음화 현상은 음의 내파화로 자음동화 현상을 촉발시키는데, 연기 지역어에 나타나는 평파열음화의 예를 들면 다음 (10)과 같다.

(10) 받	[무릅](무릎)
부억	[받뚝](발뚝)
[흥겁](형겉)	[집세기](짚신)

연기 지역어에서 음절말 위치에 오는 ‘ㅎ/h/’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갈래의 변화를 보인다.

(11)a. [싸타](쌈다)	[조타](종다)	[노타](농다)
b. [싸아](쌈아)	[조아](종아)	[노아](농아)
c. [싼는](쌈는)	[존나](종나)	[노나](농나)
d. [싸쏘](쌈소)	[조쏘](종소)	[노쏘](농소)
e. [싼](쌈-)	[존](종-)	[논](농-)

(11)a에서는 음절말 /ㅎ/이 후행 폐쇄음과 축약되어 유기음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으며, (11)b는 모음 앞에서 탈락 평파열음화 하는 예이다. (11)c에서는 [+nas] 자음 앞에서 비음화 되고 있다.³⁾ 이것은 음절말 /ㅎ/이 [t̚]로 평파열음화된 후 후행하는 [+nas] 자음으로 인한 비음 동화 현상이다. 나아가 (11)d는 [+cont]의 마찰음 앞에서 /ㅎ/이 [t̚]로 평파열음화 되어 후행 /ㄴ/을 경음화시킨 예이고, (11)e는 /ㅎ/이 음절말에서 평파열음화 되는 경우이다.

연기 지역어에서 형태소 경계를 사이에 두고 종속적 형태소의 모음이 뒤따를 때에는 평파열음화가 되지 않고 음절말 자음의 원음이 그대로 연음되는 (12)a와 후행 모음에 그대로 연음되지 않고 평파열음화 되어 연음되는 (12)b로 실현된다.

(12)a. [저지](젓이)	[꼬치](꽃이)
[나춘](낮은)	[유치](웃이)
[끄터리](끌어리)	[바튼](밭은)
[소터다](술에다)	
b. [우드른](웃어른)	[꼬단](꽃안)
[꼰뻔](꽃밭)	[꼰봉오리~꼰봉오리](꽃봉오리)
[반닐](밭일)	[소뒤](술뒤)

3.2. 경음화

경음화는 음운의 통합 관계에서 청각의 인상을 뚜렷하게 하기 위하여 자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국어의 보편적인 음운 변이이다.

3) 음운의 변별자질로 다음과 같이 약호를 사용한다.

Consonnant → C(자음), Vowel → V(모음), Syllabic → [syll](성절성), Consonantal → [cons](자음성), Voclic → [voc](모음성), Sonorant → [son](공명성), Continuant → [cont](지속성), Nasal → [nas](비음성), Strident → [str](소음성), Anterior → [ant](전방성), Coronal → [cor](설단성), Interrupted → [int](폐쇄성), Aspirate → [asp](유기성), High → [hg](고음성), Back → [bk](후설성), Low → [low](저음성), Round → [rnd](원순성), voiced → [vd] 등

우리는 수의적 현상인 어두 경음화와 형태소 경계에서 실현되는 어중 경음화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3.2.1. 어두 경음화

(13)a. ㄱ

[까시](가시)	간난아이
[깔치](갈치)	[깨구리](개구리)
[꼬갱이](고갱이)	[꼬린내](고린내)
[꼬쟁이](고쟁이)	[꾸겨지다](구겨지다)
[꾸린내](구린내)	[꾸정물](구정물)
[끄으름](그을음)	

b. ㄷ

[따급하다](다급하다)	[딱따](닭다)
[판판하다](단단하다)	던지다
[또랑](도랑)	[똥그래미](둥그래미)

c. ㅁ

[빤듯하다](반듯하다)	[뻔테기](번테기)
[뻔나무](벗나무)	[빼긴다](베긴다)
[빼룩](벼룩)	[뺱아리](병아리)
[뿌신다](부신다)	

d. ㅅ

[쌔끼](새끼)	[쓹내다](성내다)
[쏘내기](소나기)	[쭈수](수수)
[씨래기](시래기)	[씨커머타](시커멓다)

e. ㅈ

[짜가사리](자가사리)	[짜루](자루)
[짤르다](자르다)	[쪼각](조각)
[찌린내](지린내)	[꼭징이](극쟁이)

연기 지역어에서 실현되는 어두 경음화 현상은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일정한 음운 규칙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긴 힘들다. 그것은 음운론적 환경이 일정하지 못하고 지역에 따라 수의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의 강화 현상으로 말의 청각 인상을 뚜렷이 하려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⁴⁾

3.2.2 어중 경음화

(14)a. 형태소 경계

[검따](검다)	[내빠리다](내버리다)
[뒤집따](뒤집다)	[쉽따](쉽다)
[아쉽따](아쉽다)	[위짤수](어쩔 수)

b. 복합어 내부

[담빠락](담벼락)	[눈썹](눈곱)
[눈뚜경](눈두덩)	[손꼬락](손가락)
대장간	[오양간](외양간)
[장팡~장뚝대](장독대)	[드들빵아](디딜방아)
[풀빠](풀비)	[술까루](술가리)
[물뿌리](물부리)	
[시루뻘](시루번)	[새삭씨](새색시)

4) 음운의 변화는 서로 상반된 원칙에 의해 일어나는데, 노력 절약의 원칙이나 표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원칙이 바로 그것이다.(김차균 1988)

[닥짱](닭장)

[밥꼬리](밥고리)

[받뚜둑](밭두둑)

[빗짜리](빗자리)

[모짜리](못자리)

형태소간에 두 자음이 연결될 때(C_1C_2) 후행하는 자음 /ㄱ, ㄷ, ㅂ, ㅈ, ㅅ/가 /ㄱ, ㄷ, ㅂ, ㅈ, ㅅ/로 변화되어 경음화를 실현한다. 이 현상은 현대 국어의 일반적인 음운 현상으로서 형태소 경계의 파생·곡용·활용에서 일어난다.

(14)a는 형태소 경계에서 나타나는 경음화의 예이고, (14)b는 복합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경음화가 된다. (14)a는 선행 형태소의 끝 자음이 [-son]인 경우는 경음화 현상이 어김없이 나타나며, (14b)에서 복합어의 경우는 모음이나 공명음에 상관없이도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비음 /ㅁ, ㄴ, ㅇ/과 유음 /ㄹ/ 등이 음절말일 때 용언의 활용형은 경음화를 실현하지만, 명사의 곡용은 경음화가 실현되지 않는다. 단 복합어일 때는 실현된다. 또한 복합어 중 선행어의 말이 모음이나 유성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경음화를 수행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잇소리의 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사잇소리 삽입은 /담벼락-담배락/, /손가락-손꼬락/ 등과 같이 공명성 자음 뒤에 나타나는 경음화 현상을 잘 설명해 준다. 즉 복합어 내부 단어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되면, 비공명성 자음 ‘ㅅ’의 중화로 인한 내파화([t])로 후행 자음의 경음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3.3. 유기음화

파열음 /ㄱ, ㄷ, ㅂ, ㅈ/에 /ㅎ/가 이어 나오거나 /ㅎ/에 /ㄱ, ㄷ, ㅂ, ㅈ/이 이어 나오는 경우 /ㄱ, ㄷ, ㅂ, ㅈ/이라는 하나의 소리로 축약되어 거센소리가 되는데 이를 유기음화라고 한다.

유기음화는 음운의 통합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ㅎ/는 전후에 /ㄱ, ㄷ, ㅂ, ㅈ/ 등이 올 때 /ㄱ, ㄷ, ㅂ, ㅈ/으로 자음 축약을 실현하는 공식적 변이와 중양어의 비유기음이 유기음으로 실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C₁C₂의 구성 중 /ㅎ/는 C₁이나 C₂ 중 하나에 위치해야 하고, 나머지 한 구성은 [-son]의 자질을 갖는 평음이 놓일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C₁C₂ → C₃의 축약으로 실현된다.

- | | |
|----------------------|---------------|
| (15)a. [깎치 ~ 칼치](깎치) | [쿠린내](구린내) |
| [툽배기 ~ 투가리](툽배기) | |
| [투드리다](두드리다) | [한카지여](한가지여) |
| [철축](철쭉) | [덩쿨](덩굴) |
| [바가치](바가지) | [도키 ~ 도치](도끼) |
| [두커비](두꺼비) | |
| b. [구카](국화) | [아득카다](아득하다) |
| [구치다](굳히다) | [마텅](맏형) |
| [그피](급히) | [바파구](밥하고) |
| [바패라](밥해라) | [에피다](업히다) |
| [재피다](잡히다) | [좁피다](좁히다) |
| [모터다](못하다) | |
| c. [그리키 ~ 기르케](그렇게) | [노쿠](농고) |
| [위트케](어떻게) | [이르케](이렇게 하고) |
| [노타](농다) | [빨가타](빨강다) |
| [빠타](뽕다) | [노치](농지) |
| [시거머타](시커멓다) | [망쿠](맏고) |
| [겐찬타](겐찮다) | [구찬타](귀찮다) |
| [만타](맏다) | [안타](안다) |
| [할타](활다) | [비기실타](보기싫다) |

(15)a는 어떤 음운적 환경이나 조건 없이 무기음 [-asp]이 유기음 [+asp]으로 변하는 일종의 음운 강화 현상으로 국어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15)b와 같은 공시적 음운 변이의 유기음화는 중앙어와 같이 연기 지역어에

서도 자음 축약으로 나타난다. 그 음운 환경은 [+asp]인 /ㅎ/가 [+int]의 선·후행에서 [+asp]를 실현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자음 축약의 유기음화는 곡용, 활용, 파생, 합성어 등 어떤 경우든 나타난다. (15)b는 파열음 /ㄱ, ㄷ, ㅂ, ㅈ/이 /ㅎ/에 결합된 유기음화이고 (15)c는 /ㅎ/ 뒤에 파열음 /ㄱ, ㄷ, ㅈ/이 이어 나올 경우의 유기음화이다. /ㄷ/계열(/ㅎ + ㄷ/ → /ㅌ/)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비음이나 유음이 /ㅎ/ 앞 혹은 뒤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ㅅ/이 /ㅎ/ 뒤에 올 때는 유기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 | | |
|-------------------|--------------|
| (16) [판단하다](단단하다) | |
| 분명히 | [진진해](긴긴해) |
| [개썰하다](괘썰하다) | [깡장하다](굉장하다) |
| [정확없다](경확없다) | [절혼](결혼) |
| (17) [뺨는다](뺱는다) | [뺨네](뺱네) |
| [조쏘](종소) | [노췌](농세) |

(17)는 /ㅎ/의 뒤에 비음이나 마찬가지로 /ㅅ/이 올 때 /ㅎ/이 중화되어 내파음 [t̚]가 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것은 뒤따르는 비음 ‘ㄴ’이 유기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선행 /ㅎ/은 [t̚]로 내파되었다가 비음동화된 것이며, 마찬가지로 ‘ㅅ’은 유기성에 가까운 소리로서 유기음화 대신 경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3.4. 음절말 자음군 단순화

중화와 관련된 현상으로 ____ { #, C } 의 위치에 두 개의 자음이 오면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이다. 음절말 위치에서 자음군이 후행하는 자음과 만나 자음군이 형성될 때 C₁C₂의 자음 중 어느 하나가 탈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VC₁C₂

{#, C}에서 C_1C_2 를 구성하는 두 개의 자음 중 하나인 [+cor, +son]을 탈락하여 자음군이 단순화하는 현상을 뜻한다. 자음군 단순화는 표면 음성형의 제약으로 일어나는 음절말 제약이다. 기저에는 음절말 자음이 두 개(C_1C_2) 허용된다. 그러나 표면형에는 뒤에 모음이 올 경우 두 자음 모두 실현되지만 자음이나 휴지가 뒤따르면 음절말 위치에 2개의 자음이 실현 될 수는 없는 표면 음절구조 제약에 의해 자음 하나가 탈락한다. 따라서 어말 위치에서 C_1C_2 의 자음도 그 중 어느 한 자음이 탈락하여 중화를 이룬다.

(18)a. ㄴ

[안따](앉다)

[언따](엎다)

b. ㄴ

[갠찬타](괜찮다)

[마는](많은)

[만쿠](많고)

[안타](않다)

c. ㅂ

[웁씨](없이)

[웁따](없다)

[갑시](값이)

[갑뚜](값도)

d. ㄱ

[넉시](넋이)

[넉뚜](넋도)

[목시](몹이)

[목뚜](몹도)

[쌩시](쌩이)

[쌩뚜](쌩도)

e. 르계 자음군

ㄱ

ㄱ

[경익따](경읽다)

[다기](답이)

[막따](막다)

[수탁](수답)

[치글](춰을)

[흑쏸](흑손)

[늘따](늑다)

[익다~일따](읽다)

[북따~불따](붓다)

ㅂ

ㅂ

넙적다리

뽕다

[짹따~짹다](뽕다)

[밥따~발따](뽕다)

ㄹ	ㅂ
[을따~옴따](을다)	
ㄹ	
[돌두](돋도)	[외골쭉](외곶수)
ㄹ	
[할따](할다)	[홀따](홀다)
ㄹ	
[곰따](굼다)	[옴따](옴다)
[점따](젼다)	
ㄹ	
[비기싣타](보기싫다)	[끼리다](끼이다)
[오른말](옴은말)	

/ㄹ/과 /래/, /ㄹ/은 ㄹ : ㄱ, ㄹ : ㅂ, ㄹ : ㅍ의 표면형이 교체되어 중화로 나타나고, 나머지는 ㄴ → ㄷ, ㄴ → ㄷ, ㅂ → ㅂ, ㄱ → ㄱ, ㄹ → ㄹ, ㄹ → ㄹ, ㄹ → ㄹ, ㄹ → ㄹ로 단순화된다.

이 자음군 단순화 원칙으로 김차균(1987)에서 $C \rightarrow C^+ / __ C < \text{단함 소리 규칙} >$ 이 적용된 후,

- 1) 울림도가 0도이거나 0도에 가까운 소리는 탈락하고,
- 2) 두 개의 단함 소리가 1도 이상의 울림도일 때 강도 낮은 소리가 탈락한다. 또한 낱말이나 방언에 따라 울림도가 낮은 쪽이, 강도가 낮은 쪽이 탈락한다는 점을 밝혔다. 연기 지역어도 그 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나 /래/과 /ㄹ/, /ㄹ/은 거의 /ㅂ, ㄱ, ㅂ/으로 중화되나 극히 일부 화자는 수의적으로 /ㄹ/를 실현하였다.

자음군에서 두 자음 ‘ C_1C_2 ’ 중 어느 것이 탈락되느냐 하는 문제에는 [cor] 자질과 [son] 자질이 관여한다. ‘래, ㄹ, ㄹ, ㅂ, ㄱ’의 경우, [+cor] 자음과 [-cor] 자음이 자음군을 이룰 때 [-cor] 자음이 남고 [+cor] 자음이 탈락한다. 또 ‘ㅂ, ㄴ’의 경우, 두 자음이 모두 [-cor] 자음일 때는 [+son] 자음이 남고 [-son] 자음이 탈락한다. 따라서 연기 지역어에서 자음군 단순화는 /래

/과 /리/, /리/를 제외하고는 [-cor, +son]은 남고 [+cor, -son]은 삭제된다. [+son]과 [-cor]의 배합에서 수의적으로 [-cor]와 [+son]이 남지만, [-cor]가 우세한데 이것은 강도상 [-cor]가 강하기 때문이다.

3.5.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ㄱ, ㄷ, ㅎ/가 동화주 /i/ 나 /y/를 만나 [+high] 자질을 가지는 /c/와 /s/로 변하는 음운 현상이다. 이 구개음화는 음운사적인 면에서 볼 때 근대 국어 음운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 중의 하나로 이기문(1982:64)에서 “구개음화 현상은 17세기 후반을 거쳐 18세기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바, 동남 및 서남 방언에서 먼저 일어나 점차 북상하면서 광범위하게 구개음화를 경험했으며 중부 방언은 그 일부가 경험했고, 서북 방언은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남부에서 발생하여 북상하는 것”으로 논의한 바 있다. 이 중 /ㄱ/ > /ㅈ/, /ㅎ/ > /ㅊ/의 구개음화는 어두 음절에서 실현된다. 이것은 통시적 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동화주가 어원적으로 /-iy/ > /i, y/, /wi/계의 변화를 겪은 경우는 구개음화를 실현하지 못한다.⁵⁾ 그러므로 세 계열의 구개음화 중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공시적인 구개음화는 /ㄷ/ → /ㅈ/뿐이다.

3.5.1. 어두 자음의 구개음화

어두 자음의 구개음화 현상은 /ㄱ/와 /ㅎ/로 나누어진다. /ㄷ/ > ㅈ/는 이미 통시적으로 실현된 것으로(똥다 > 좋다, 디다 > 지다, 디나다 > 지나다, 티다 > 치다 등) 볼 수 있어 현대 국어의 어두에선 실현되지 못하고 단지 공시적인 형태 음운적인 변이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5) 최태영(1983:66-77)에서는 ‘iy’라는 이중모음을 유지하고 있어 구개음화를 겪지 않고, 단모음으로 교체되어 지금도 이 현상을 외면한다.

3.5.1.1. [ㅈ]/(k/)

(19) [자룩하다](가름하다)	[저](겨)
[저드랑](겨드랑)	[저눈다](겨눈다)
[전디다](견디다)	[정황엿따](경황없다)
[지수](계수)	[지시다](계시다)
[지다라타](기다랗다)	[지둥](기둥)
[지울](기울)	[지름](기름)
[지미](기미)	[지와집](기와집)
[지지기](기지개)	[질쌈](길쌈)
[짐](김)	[짚다](깎다)
[집따](꼬다)	

이 /ㄱ/계 구개음화는 한자어보다는 순수 국어에서 예외 없이 나타난다. “정끼(경기), 점상(검상), 정황(경황), 지수(계수)” 등의 예외적인 음성 실현을 찾을 수 있으나 이는 한자어가 언중의 의식 속에서 고유어로 인식되어졌기 때문에 구개음화의 영향권 내에 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성복, 격분” 등 대부분의 한자어는 구개음화를 실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차이는 언중의 순수 국어화의 의식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ㄱ/계 구개음화는 어두음절에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지역어에서 예외적인 현상으로 제 2음절에서 실현되는 어휘가 있다.

(20) [밀지울](밀기울)	[쌀저](쌀겨)
[연지름](엿기름)	

(20)의 예는 모두 복합어로써 /밀+기울/, /쌀+겨/, /엿+기름/와 같이 분석된다. 이는 ‘밀기울’, ‘쌀겨’, ‘엿기름’으로 단어가 합성되기 이전에 구개음화를 일으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기울/ → [지울], /겨/ → [저], /기름/ → [지름]으로 변한 뒤에 변화형과 복합된 것으로 파악된다.

3.5.1.2. [ㅅ](/h/)

(21) [서빠닥](허바닥)	[성](형)
[상불](향불)	[숭내다](홍내다)
[숭년](홍년)	[숭보다](홍보다)
[심](힘)	[심줄](힘줄)
[숭척하다](홍척하다)	

위의 예는 연기 지방의 형태소내의 어두 구개음화이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별로 차이가 없다. 이 구개음화를 일으키는 동화주 /i/는 어원적으로 /i/라야 가능하다. 통시적으로 /i y/계의 “괴력>기레기~기러기, 어딴>워디~어디, 마디>매디~마디” 등은 구개음화를 실행하지 못한다. /ㅎ/계의 [시다](희다), [시망](희망), [시사](회사), [시끝](희끗) 등에도 거의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는다.

3.5.2. [ㄷ](/t/)계의 구개음화

어두 음절에서 발견되는 /ㄱ/, /ㅎ/계를 제외하고, 어중에서의 구개음화는 공식적 입장에서 고찰할 때 /ㄷ/계 구개음화가 대표적이다(최명옥 1982). 형태소 경계를 개재시키는 /ㄷ/계 구개음화는 다음과 같은 조건 속에서 실현된다.

(22) [고지](곧이)	[구지](굳이)
[미다지](미닫이)	[해도지](해돋이)
[가치다](갈히다)	[가치](같이)
[다치다](달히다)	[무치다](묻히다)
[부치다](붙이다)	

이 구개음화는 파생 접미사 ‘히’, ‘이’ 앞에서 용언 어말 /ㄷ/, /ㅌ/를 /ㅈ/, /

ㅈ/로 구개음화하는 현상으로 형태소 배합의 경우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명사 어말 /ㄷ/계가 주격 /-이/나 계사 /-이/ 형태소와 결합에서 /ㅈ, ㅊ/로 구개음화하여 실현하는 경우는 다른 충남 방언과 달리⁶⁾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실현되고 있다.⁷⁾

- | | |
|---------------|----------|
| (23) [소치](술이) | [바치](밭이) |
| [파치](팔이) | [미치](밋이) |

3.6. 유성음화

국어의 상관속(correlational bundle)은 평음, 유기음, 경음의 3계열로서 영어처럼 ‘유성 : 무성’의 대립이 없다. 그래서 국어의 자모에는 유성음이 빠져 있으나, 실제 음성 실현상에는 유성음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유성성[+voiced] 자질은 성문의 폐쇄로 인한 성대 진동의 유무를 나타내는 것으로, 국어에는 모음, 활음, 유음, 비음 등이 유성음에 해당된다. 폐쇄음과 파찰음은 어두에서 [-voiced]로 나타나며, 유성음 사이에서는 유성음화가 된다. 그러나 마찰음과 폐쇄음 중에 유기음, 경음 등은 마찰성, 유기성, 경음성 등으로 인해 유성음화되지 않는다. 이러한 국어 일반의 유성음화 규칙은 이 지역어에도 어김없이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복합어 형성 시에는 유성음 사이의 무성음이 유성음화되지 않고 경음화되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6) 한영목(2000:25)에서는 ‘술, 밋, 밧, 팔’ 등은 [soc^hi, pac^hi] 등으로 나타나거나 마찰음 /s/로 중화하여 [pasi], [sosi]로 실현되지만, [sot^hi, pat^hi]로는 거의 실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체언의 형태음운 변동을 마찰음화로 본다.

7) /k^hit^h+i/ → [k^hisi : k^hic^hi] /pat^h+i/ → /pasi : pac^hi : pat^hi]
/t^h/계 체언 어말음의 /t^h/ 유지는 /s/ 나 /c^h/보다 적다. 이것은 충북 방언에서 구개음화 실현(최갑순 1977, 김진봉 1984)하고 최태영(1983)에서 전주 지역어는 마찰음화가 심하며, 김중희(1985)에서 충주 방언에서는 연음과 마찰음화가 공존한다고 하였다.

- (24) [pamp'ɛ](밤배) [somp'ul](산불) [sulc'ip̃](술집) [didimt'ol](디딤돌)
cf. [sombal](손발) [ək'ɛdɔŋmu](어깨동무) [ciwajip̃](기와집)

이것은 유성음화에 선행하여 복합어 내부에 개재되는 사이시옷이 후행 자음을 경음화시킨 것으로, 이 때문에 유성음화가 저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교 예(cf.)에서처럼 경음화되지 않고 유성음화로 나타나는 예들도 있으므로, 복합어 형성 시의 유성음화는 수의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3.7. 마찰음화

마찰음화는 [+cons, +cor, +asp]의 자질을 가진 체언 말음이 후속하는 모음의 영향으로 마찰음화를 실현하여 [ɳ]로 중화되는 것을 의미한다.⁸⁾ 체언 말에 ㄷ[t̚]로 중화되는 설단 자음들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에 연음될 때 [ɳ]로 실현되는 현상이다.⁹⁾

- | | |
|------------------|-------------|
| (25) [바시~바치](발이) | [바슨~바튼](발은) |
| [소시~소치](술이) | [소슨~소튼](술은) |
| [파시~파치](팔이) | [파슨~파튼](팔은) |
| [나시~나치](낮이) | [나슨~나튼](낮은) |
| [꼬시~꼬치](꽃이) | [꼬슨~꼬튼](꽃은) |
| [유시~유치](윇이) | [유슨~유튼](윇은) |
| [저시~저치](젇이) | [저슨~저튼](젇은) |
| [미시~미치](밋이) | [미슨~미튼](밋은) |

8) [+asp]→[+fricatives]/ _ [V, -low]

9) 이 현상에 대한 견해는 대체로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간극도에 의한 마찰음화 현상으로 보려는 것이고(최태영 1977, 박충구 1984, 최전승 1986), 또 하나는 재해석에 의한 유추적 확대 현상으로 보려는 것이다.(고광모 198)

(25)에서 ‘밭+이, 술+이, 팔+이, 밭+이’는 (23)처럼 각각 ‘[바치], [소치], [파치], [미치]’로 구개음화되기도 하지만, ‘[바시], [소시], [파시], [미시]’로 마찰음화되기도 하므로 혼류 표시(∼)로써 나타낸 것이다.

(25)의 마찰음화는 중부 지방의 한 특징이 될 수 있는데, 후속 어미에 따라 수의적으로 나타나지만 적극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웃+이 → [이우지], 낮+은 → [나즌]’은 중앙 방언과 마찬가지로 연음되어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처격 조사가 폐구조화된 경우 마찰음화는 실현되지 못하고, 격조사이외의 형태소가 올 때는 마찰음화 대신에 약화 현상이 나타난다. 후행 모음은 [+hg, -rnd]를 요구하지만 N₁+N₂나 N(을) # Vt와의 결합에서는 이 현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26) [꼬단](꽃+안)

[반닐](밭+일)

[소뒤](술+위)

[소티다](술+에다)

또 체언 말음이 [+cons, -cor, +asp]인 경우는 후행 모음 앞에서 [ɿ]로 중화되지 않고 /ㅍ → ㅂ/, /ㅋ → ㄱ/ 무기음으로 약화된다. [지비](짚+이), [지브로](짚으로), [무르비](무릎+이)와 같이 중화된 무기음이 후행모음에 연음되고 있다. 이들은 다른 형태소와 만나도 중화를 유지하므로 체언말 유기음의 마찰화는 [-cor, +asp] 자음에서는 실현되지 못한다. 그러나 /부엌+이/는 [pwək^{hi} 뷔키]로 발음되고 있어 예외적이다. 마찰음화는 [+cor] 조음 위치에서 모음간의 간극에 의한 동화로도 볼 수 있다. 연기 지역에서 체언말 유기음은 모음이 후행할 때, 마찰음화, 구개음화, 중화 등의 교체도 나타나지만 [ɿ]로의 중화가 가장 적극성을 띠고 있다.

3.8. 유음화

‘ㄹ’이 ‘ㄴ’과 인접할 때 ‘ㄴ’이 유음의 영향으로 ‘ㄹ’로 바뀌는 현상이다. 이

는 비음 /ㄴ/이 유음 /ㄹ/의 전후에서 유음 /ㄹ/로 변하는 현상으로 비음보다 유음의 공명도가 크기 때문에 비음이 유음으로 동화된다. 김차균(1988, 1993)에 의하면 C_1C_2 에서 유음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간극도가 $C_1 \geq C_2$ 로 맞춰지는 것이 국어의 일반의 원칙이기 때문이라 한다.

- | | |
|------------------|-------------|
| (27)a. [말리](만리) | [할라산](한라산) |
| [골란](곤란) | |
| b. [칼랄](칼날) | [불로리](불놀이) |
| [살랄](살날) | |
| c. [일르다](읽는다) | [끌르다](끓는다) |
| [할르다](훅는다) | [홀르다](훔는다) |
| cf. [쌈:는다](삶:는다) | [밤는다](뱀:는다) |
| [잉는다](읽는다) | |

(27)a, b는 ‘ㄴ’이 ‘ㄹ’의 앞과 뒤에서 각각 유음화가 되고 있으며, (27)c의 ‘ㄴ’은 선행 ‘ㄹ’계 음절말 자음군이 ‘ㄹ’로 단순화된 후에 유음화되고 있다. (27)c의 경우 ‘ㄹ’과 ‘ㄴ’사이에 다른 자음이 개재하였는데도 유음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먼저 음절말 자음군 ‘ㄹ, ㄹ’의 ‘ㅎ’과 ‘ㅌ’이 [t̚]로 내파음화 되고, 음절말 자음군 규칙에 의해 ‘ㄹ’로 단순화된 뒤에 후행 ‘ㄴ’을 유음화시키는 것이다. 연기 지역어에서도 어간말이 ‘ㄹ’로 시작하는 자음군일 때 일어나며 그 경우에도 ‘ㄹ’ 뒤의 자음이 ‘ㅎ’이나 ‘ㅌ’일 때 한하여 일어난다. 이 경우에는 자음단순화에 의해서 어간말의 ‘ㅎ’이나 ‘ㅌ’이 탈락하기 때문이다. (27)c에서 보듯이, ‘ㄹ’ 다음의 자음이 ‘ㄱ, ㅂ, ㄱ’등 [-cor]의 자질을 가질 때에는 즉 자음군이 ‘[+cor] [-cor]’일 때에는 [+cor]를 가진 ‘ㄴ’ 앞에서 [+cor]를 가진 ‘ㄹ’이 탈락한다. 그러므로 ‘ㄴ’ 앞에서 ‘ㄹ’이 탈락할 때에는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3.9. 자음 첨가

이 현상에는 단일 형태소 내의 음운 첨가와 형태소 배합 관계에서의 음운 첨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음운 강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3.9.1. ‘ㄹ’ 첨가

이 지역어의 자음 첨가로 가장 활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ㄹ’ 첨가다. ‘ㄹ’ 첨가는 ‘ㄹ’불규칙 용언의 경우에 /ㄹ/음이 첨가된다. [꺼꾸로](거꾸로)와 같은 첨가도 나타난다.

(28) [갈르다](가르다)	[굴르다](구르다)
[길르다](기르다)	[날르다](나르다)
[갈라면](가라면)	[말르다](마르다)
[말르다](마르다)	[몰르다](모르다)
[발르고](바르고)	[블르네](부르다)
[살르다](사르다)	[올르면](오르면)
[잘르다](자르다)	[골르다](고르다)

3.9.2. ‘ㄴ’ 첨가

(29)a. [곤노](고누)	[근네](그네)
[근너줄](그넷줄)	[젠님](대님)
[산내끼](새끼)	[쏸내기](소나기)
[어는날](어느 날)	[인잔](이제)
[모냥](모양)	
[구렌날](구레나룻)	
b. 구르다	[길르다](기르다)
[날르다](나르다)	[말르다](마르다)

[몰른다](모르다)

[불른다](부르다)

[잘른다](자르다)

[찢른다](찌르다)

(29)b는 동사의 현재형이 ‘Vst+ㄴ/는다’로 실현되는 경우다.

3.9.3. ‘ㅇ’ 첨가

(30) [똥아리](또아리)

[몽조리](모조리)

[진당이](진드기)

3.10. 자음 탈락

3.10.1. ‘ㄴ’ 탈락

(31) [야중에](나중에)

[아주머이](아주머니)

[아하구](안 하교)

[어머이](어머니)

[할머이](할머니)

(31)의 [야중에]는 어두의 ‘ㄴ’이 탈락되어 나타난다. ‘나중’의 고어는 ‘내중’으로 ‘내’의 ‘애/ay/’가 ‘야/ya/’로 음운도치 되었다가 활음 ‘y’ 앞에서 ‘ㄴ’이 탈락된 것으로 보인다. 어두의 ‘ㄴ’이나 ‘ㄹ’이 활음 ‘y’나 ‘i’ 앞에서 탈락되는 것은 국어의 일반적인 두음법칙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3.10.2. ‘ㅅ’ 탈락

(32) [뽕, 머](무엇)

[뽕루](무엇으로)

/ㅅ/ 탈락은 의문대명사나 불완전 명사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연기 지역어에서는 ‘뭇이(무엇이), 뭇편거슬(어떤 것을), 이거슨(이것은)’ 등 모음 어미가 후속하면 /ㅅ/이 유지된다.

현대 국어의 ‘ㅅ’불규칙 용언의 어간 말음 /ㅅ/은 모음과 연결될 때는 생략된다. 그러나 연기 지역어에서는 (33)과 같이 규칙 활용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고어형의 어휘가 유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3) <ㅅ불규칙>	<연기 지역어>
이어라(잇어라)	이서라(잇어라)
그어라(긋어라)	그서라(긋어라)
저으니(젓으니)	저스니(젓으니)
나아(낫아)	나사(낫아)
부어(붓어)	부서(붓어)
주어라(줏어라)	주서라(줍어라)

그 밖에 (34)처럼 ‘ㅅ’이 탈락되는 어휘도 나타나고 있다.

(34) [구렌날](구레나룻)
[다서](다섯)
[상우리](상수리)

3.10.3. ‘ㅎ’ 탈락

‘ㅎ’ 탈락은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서 수의적이지만 대부분 약화나 탈락된다.¹⁰⁾ 특히 형태 음운론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¹¹⁾

10) ㅎ(h) → ∅/[+유성음] __ [+유성음]

11) [마는](많은), [하야니](하양니), [조아](좋아)

(35) [개니](괜히)	[느이들~니덜](너희들)
[마운](마흔)	[빼니](뻘히)
[시미](심히)	[아으래](아흐래)
[여를](열흘)	[오리](올해)
[오른말](옳은 말)	[으네](은혜)
[이러카고](이렇게 하고)	[저이집~즈집](저희 집)
[자시](자세히)	
[괜찬유](괜찮아요)	

그 밖에 /ㅈ/12), /ㅊ/13), /ㄱ/14), /ㅋ/15)의 탈락이 보이거나 생산적이지 못하다.

3.11. 중간 자음 유지 현상

(36) [가새](가위)	[과실](과일)
[구수](구유)	[나싱개](냉이)
[마실](마을)	[모새](모래)
[모시](모이)	[무수](무)
[아수](아우)	[여수](여우)
(37) [개금](개암)	[고물개](고무래)
[글거모으다](꺾어모으다)	[남구](나무)
[벌거지](벌레)	[실경](시렁)
[얼게미](어레미)	[얼기비](얼레빗)
[연질금](엿기름)	

12) [광우리](광주리)

13) [비알](비탈)

14) [내비뒤라](내버려두다) [다래](달래)
[싸장사](쌀장수) [글리](그리로)

15) [고래구녁](고래구멍) [구녕](구멍)

(36)의 예는 통시적인 면에서 볼 때, 중세 국어에서 /z/(△) 음은 유성음 사이의 음운 환경에서 약화, 탈락 된 어휘에서 나타난다. 즉 $s > z > \emptyset$ 의 변화 과정을 겪는 어휘이지만, /z/의 전 단계인 /s/음을 유지하고 있는 어휘가 상당수 발견된다. 이는 유성음 사이에서 /△/이 /ㅅ/과 음성적 혼란을 보이다 /ㅅ/으로 유지되었으며, 그 과정은 $ㅅ > \Delta \sim ㅅ > ㅅ$ 로 생각된다.

(37)은 중간에 /-ㄱ-/ 자음이 나타나는 어휘들이다. 중간 자음 /-ㄱ-/은 통시적으로 $k > g > \emptyset$ 의 변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연기 지역에서는 /k/ 탈락 이전의 고어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ㄱ/16), /ㄷ/17), /ㅈ/18)의 첨가가 보이거나 생산적이지는 못하고 수의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
- | | |
|--------------------|------------|
| 16) [가름마](가르마) | [돌맹이](돌) |
| [미꾸람지](미꾸라지) | [부실먹](부스럼) |
| [술개미](술개) | [아범](애비) |
| 17) [또바리~또뱅이](또아리) | [새뱅이](새우) |
| 18) [금저리~점저리](거머리) | [귀지개](귀이개) |
| [오금쟁이](오금) | |

제4장 모음의 음운 현상

4.1. 모음 상승

모음 상승(vowel rising)이란 모음 체계상에서 개구도가 큰 모음이 개구도가 작은 모음으로 변하는 자생적 변이이다. 국어의 대표적인 음운 현상으로서 혀의 높낮이로 볼 때, 중모음이 고모음으로, 저모음이 중모음으로 상승하는 변이이다. 이는 폐구조음 원칙, 즉 노력 절약의 원리에 의해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 왔음¹⁹⁾이 일반적이다. 공시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며, 아울러 통시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김정태 2003:53) 그러나 김진우(1971:88)에서 제시한 /애 → ऐ/²⁰⁾와 /아 → 어/²¹⁾는 엄밀한 의미에서 고모음화라고 할 수가 없다.

연기 지역에서도 모음 상승은 /에 → 이/, /어 → 으/, /오 → 우/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4.1.1. /ऐ/ → [이]

(38)a. [모:리](모:레)	[변:디기](변:테기)
[시:배](세:배)	[시 상](세:상)
[시:수](세:수)	[심:](셈:)
[지:수](제:수)	[지:사](제:사)

19) 김진우(1971:88)에서 서울말에서 고모화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ㄱ. ㅐ → ㅣ : 베다 → 비다
 ㄴ. ㅐ → ㅓ : 예배당 → 예비당,
 ㄷ. ㅓ → ㅡ : 없다 → 읊다, 정 → 증
 ㄹ. ㅓ → ㅓ : 하고 → 허구
 ㅁ. ㅓ → ㅓ : 몰라 → 물러, 돈 → 둔

20) 국어의 모음 /ㅐ/와 /ㅓ/는 조음 간격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많은 방언들에서 두 모음 간의 대립이 없어지고 음성적으로 /ㅐ/와 /ㅓ/의 중간음 [E]로 발음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21) 김정태(2003:64-66)에서 ‘ㅓ → ㅓ’의 변화를 모음조화와 관련하여 음성모음화로 보려는 경향이 있고, 강희숙(2005:6)은 ‘ㅓ → ㅓ’는 ‘ㅎ- > 허-’, ‘글- > 겔-’ 등 몇몇 어휘에서 발견되는 통시적 성격의 ‘ㅓ’의 비음운화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고모음화 현상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젤:~질:](제:일)	[디;다](데:다)
[비:다](베:다)	[시:개](세:개)
[지;발](제:발)	[시:번](세:번)
b. [수지비](수제비)	[실지](실제)
[얼기미](어레미)	[꺅디기](꺅테기)
[그런디](그런데)	[자시](자세히)

- (39)a. [저티서](겉에서) [아피간다](앞에 간다)
 [지비간다](집에 간다) [디꺼티 이따](뒤곁에 있다)
 [배가티](바깥에) [길가시](길가에)
 [가튼디서](같은 곳에서) [소티다](술에다)
 [시어머니기다가](시어미에 다가)
 b. [나한티](나한테) [권한티](주인한테)
 c. [나인디](나인데) [허는디](하는데)

- (40)a. [지시다](계시다) [베실](벼슬)
 [비개](벼개)
 b. 지렁이 [구디기](구더기)
 [누디기](누더기)

(38)은 어휘 형태소 내부에서 (39)는 문법 형태소에서 ‘/에/ → [이](e → i)’로의 변이를 보이는 예이다. (38)a의 예처럼 장모음 /에:/의 /이/로의 변화가 적극적이다. 이는 ‘/에/ → [이](e → i)’의 실현에 음장이 가장 중요한 음운론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애초에 음장이 음운론적 기능을 발휘하여 어두 위치에서 발생한 것이 음장이 그러한 기능을 갖지 못하는 비어두 위치나 문법 형태소에까지 확대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40)a는 /ye, yə/ → [e] → [i]로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예이나 수의적이다. (40)b는 ‘지렁이’가 ‘지렁이’로 먼저 움라우트를 겪음으로써, 모음 상승이 적용받게 되어 수직 상승한 결과로 ‘지렁이 → 지렁이’가 실현된 것이다(김정태 2003:60). 규칙순(Rule ordering) 속에서 ‘에 → 이’의 모음 상승을 확인할 수 있다.

4.1.2. /어/ → [으]

- | | |
|------------------------|--------------------|
| (41) [그:머리](거:머리) | [그:지](거:지) |
| [그:짐 말](거:짓 말) | [늘:] (널:) |
| [스:모](서:모) | [스:산](서:산) |
| [스:죽](서:죽) | [스:] (선:) |
| [스:달](선 달) | [슬:] (설:) |
| [쓰:레](써:레) | [으:른](어:른) |
| [응:덩 이 ~ 응:덩 이](영:덩 이) | [즌:기](전:기) |
| [즘:신](점:심) | [증:식 으로](정:식 으로) |
| [흔:법](현:법) | [흔:병](현:병) |
| [흙:] (힘:) | [흥:겉](형 겉) |
| [근:느 다](건:너 다) | [끄:내 거 든](꺼:내 거 든) |
| [느:타](낱:다) | [드:렵 다](더:렵 다) |
| [들:먹 다](덜:먹 다) | [스:렵 따](서:렵 다) |
| [쑤:내 다](성:내 다) | 썰:다 |
| [으:드 러](얼:으 러) | [웁:씨 ~ 음:씨](없:어) |
| [웁:지 ~ 웁:씨:] (없:지) | [죽:다](적:다) |
| [흙:하 다](힘:하 다) | [늑:잔](녁:잔) |
| (42) [그기](거기) | [느 집](너 의 집) |
| [느이 들](너 희 들) | [을마 를](얼마 를) |
| [우드 른](웃 어 른) | [이 응 ~ 영](이 영) |
| [즈회 집](저 회 집) | 춤 |
| [호실](허실) | [이르케 하고](이렇게 하고) |
| [머그야](먹 어 야) | [근느 다](건너 다) |
| [근디](그런 데) | [덱썩](덱석) |
| [춘춘히](천천히) | [워 뜰](어 떤) |
| [숙냥](석 냥) | [숙달](석 달) |

[스되/(석 되)

[흔물건](헌 물건)

[흔집](헌 집)

(41)은 어두 위치의 장모음 /어/(/ə/)가, (42)는 장모음이 아닌 단모음 /어/(/ə/)가 각각 고모음화에 의해 [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 → 으’의 생산성은 어두 위치에서는 물론 비어두 위치에서도 확인되는데 문법 형태소²²⁾에서는 확인하기가 드물다. ‘아버지 → 아브지 → 아부지, ‘없어 → 읍써 → 읍써’처럼 ‘어 → 으 → 우’의 진행을 연기 지역어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4.1.3. /오/ → [우]

(43)a. [곰:부](곰:보)

[사:춘](사:촌)

[신:옹](신:용)

[장:짱 ~ 장:뚝대](장:독대)

[화:루](화:로)

[화:루뿔](화:룻불)

[망:꾸](망:고)

문:씨

[무:태](무:해)

b. [꼬무](고모)

[고무부](고모부)

기계충

[돔부](돔보)

삼촌

[소쿠대미](소코리)

의복

[저구리](저고리)

[따루따루](따로따로)

[별루](별로)

[서루](서로)

[올바루](올바로)

[채국채국](차곡차곡)

(44) [기슈](게시어요)

[가지구서](가지고서)

[거리루](거기로)

[아하구](안 하고)

[올릴라구](올리라고)

[떠카구](떡하고)

22) 그러면 → 그라믄, 말하자면 → 말하자믄

[내빠리구](내버리고)	[뭇루](무엇으로)
[먹구](먹고)	[메구](메고)
[바파구](밥하고)	[아니구](아니고)
[월루](어디로)	[가유](가오)
[갈까유](갈까요)	[그리유](그래요)
[괜찬유](괜찮아요)	[그람유](그럼요)

후설 모음 /오/가 고모음화에 의해 /우/로 실현되는 현상은 중부 방언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43), (44)에서처럼 어두 위치에서는 그 실현이 극히 제한적이며 비어두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실현된다. 비어두 위치에서 ‘오 → 우’의 변화의 적극성은 부사어에서는 물론, 조사와 어미 같은 문법 형태소에서도 발견된다. 또 ‘요 → 유’로 실현되는 경우도 종결어미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이 현상들은 화자의 연령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수의적으로 실현된다.

4.2. 움라우트 현상

움라우트(umlaut)란 선행하는 음절의 후설모음이 후행하는 음절의 고모음 ‘i’나 반모음 ‘y(=j)’의 영향을 받아, 모음 체계상의 서열(order)에 있어 대립하는 전설의 모음으로 변하는 음운 현상이다. 이는 동화주 ‘i, y’에 후설모음이 이끌리는 동화현상으로서 역행동화요, 원격 및 부분 동화 현상이다(김정태 2002:136). 그러므로 움라우트는 V_1CV_2 구성에서 V_1 이 전설모음화가 이루어지는 음운 변이다. 도수희(1981:4)에서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자음이 개재하여야 하며 그 개재 자음은 반드시 [+grave]의 자음이여야 하기 때문에, 이승재(1983)에서도 자음을 개재시키지 않는 경우 움라우트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움라우트는 위치적 자질에 따라 [$\pm$ back]의 대립에 의하여 /으/ → [이], /우/ → [위], /어/ → [에], /오/ → [외], /아/ → [애]로 실

현 한다.

4.2.1. /아/ → [애]

(45) [개불다~개뵈다](가뵈다)	[기 맥히다](기막히다)
[넌편](남편)	[두루매기](두루마기)
[매끼다](말기다)	[맨드래미](맨드라미)
[생키다](삼키다)	[소내기](소나기)
[썸배기](썸바귀)	[아개미](아가미)
[아지랭이](아지랑이)	[앵기다](안기다)
[오이소백이](오이소박이)	[올개미](올가미)
[잠뱅이](잠방이)	[재피다](잡히다)
[쟁끼](장끼)	[챙피하다](창피하다)
[피래미](피라미)	[핵교](학교)
[할애비](할아버지)	[해배래기](해바라기)
[호랭이](호랑이)	[홀애비](홀아비)

4.2.2. /어/ → [에]

(46) [구랭이](구렁이)	넝겨
[데미다](덤비다)	두꺼비
[두드레기](두드러기)	[두랭이](두렁이)
[메기다](먹이다)	[베끼다](벗기다)
[삭쟁이](삭정어)	[살텡이](살덩어)
[셈기다](섬기다)	[에미](어미)
[언챙이](언청이)	[에피다](엮히다)
[웅덩이](엉덩이)	[지느레미](지느러미)
[지랭이](지렁이)	[홀에미](홀어미)
[꾸레미](꾸러미)	[구테기](구더기)
[누데기](누더기)	[구텡이](구덩이)

4.2.3. /오/ → [외]

- | | |
|--------------------|----------------|
| (47) [민물 괴기](민물고기) | [뵈기 싣타](보기 싫다) |
| [성편](송편) | [개뽕이~개뽕이](개뽕이) |
| [괴기~게기](고기) | [쇠고기~세게기](쇠고기) |
| [쇠기다~세기다](속인다) | 웁기다 |
| [퇴끼~테끼](토끼) | [뵈기~폐기](포기) |

4.2.4. /우/ → [위]

- (48) [귀경](구경)
 [늪비이불](누비이불)
 [막똥이](막둥이)
 [모똥이~모똥이~모똥이](모통이)
 [몽똥이~몽똥이~몽똥이](몽둥이)
 [시염~쉬염](수염)
 [쉬기다](숙이다)
 [주똥이~주똥이~주똥이](주둥이)
 [쥐며](주며)
 [쥐인~쥬인](주인)
 [쥐기다~지기다](죽이다)

4.2.5. /으/ → [이]

- | | |
|-----------------|----------------|
| (49) [다디미](다듬이) | [다디미질](다듬이질) |
| [다디미똥](다듬잇돌) | [디끼 싣타](듣기 싫다) |
| [딩제](등겨) | [띠켜](뜨켜) |
| [띠끼다](뜨끼다) | [징명](증명) |
| [진디기](진드기) | [칙량](측량) |
| [틱벨히~틱베리](특별히) | [딩계](등겨) |

(45-49)은 움라우트된 모음과 ‘i, y’ 사이에 [+grave] 자음이 개재한 예로 연
기 지역에서 매우 생산적으로 실현된다. 국어의 일반적인 움라우트 현상은 개
재 자음이 [+grave]이어야 적극적이다. [+grave]가 움라우트를 유발하고
[-grave]가 움라우트를 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grave]는 국어 움라
우트 규칙을 크게 제약하는 요소가 된다.

그러나 최명옥(1989, 18-26)은 움라우트를 저지하는 자음들이 공통적으로 가
지는 자질은 [+hg, -bk](경구개음, 유음 [l]과 [ʎ] 포함)이며, 움라우트를 가능
하게 하는 개재 자음의 음운론적 조건은 조음 시에 {i, y} 앞에서 [ahg abk]의
자질을 가지는 것(경구개음화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가렵다
→ 개렵다, 차리다 → 채리다, 버리다 → 베리다’ 등과 같이 ‘ㄹ’이 개재할 때
도 움라우트 현상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있다.

(50)a는 개재 자음이 [-grave]인 ‘ㄹ’ 개재된 움라우트이다. 그러나 (50)a의
예들을 보면 개재 자음이 모두 [r]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개재 자음이
[+lateral]의 [l]인 경우에는 움라우트를 외면한다. 또한 용언의 경우 (50)b에서
‘ㄴ’이 개재한 예도 나타나고 있으나 생산적이지는 못하다.²³⁾

- | | |
|-------------------|--------------|
| (50)a. [대리미](다리미) | [되런님](도런님) |
| [해배래기](해바라기) | [디리다](드리다) |
| [개릅다](가렵다) | [개리다](가리다) |
| [에릅다](어렵다) | |
| b. [대니다](다니다) | [하래니께](하라니까) |

그리고 후행음절의 모음이 ‘i’나 ‘y’가 아닌 그 밖의 전설모음에 의해 움라우

23) 이문구 소설에서는 움라우트 제약조건을 벗어난 ‘담배[땨배], 당신[땡신], 밥술[뱍술], 농촌[뉡촌],
참기름[챙지름], 찾어가[챗어가], 충남[충뉡]’ 등과 /ㄹ/이 개재하는 경우 도런님[되런님], 골치[펼치],
노력[뇌력]이 나타난다. 충남 방언에서도 ‘누님[뉘님], 다리다[대리다], 어렵다[에릅다], 어리다[에리
다], 차리다[채리다], 모시다[뵤시다]’ 등과 특정 어휘에서는 움라우트 제약성을 벗어나는 경우도 상당
하다.(한영목 2003 7:167-170)

“송현. 원님은 무어이며 뇌인 양반은 또 뭘이란 말이나.”(일락 43쪽)

“너 그 물건 팔러 대니는 게냐?”(이풍진 334쪽)

“주먹만한 게 썩바가지 읊는 쇠리만 더럭더럭 현단말여.”(암소 350쪽)

트가 된 예가 있다. ‘[늪에](누에), [배뀌다](바뀌다), [뺨때기](뺨), [노란제](노른자위)’ 등이 그것인데, 이 예들은 각각 [에], [위], [애] 등의 [-bk] 자질에 동화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움라우트 현상은 몇 예에 국한될 뿐이다.

이는 이 지역에서 움라우트 현상이 유추에 의하여 확대되어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3. 원순모음화

원순모음화 현상은 순음(ㅁ, ㅂ, ㅍ, ㅃ)이 모음 ‘으’를 원순모음 ‘우’로 순행 혹은 역행 동화시킨 공시·통시적인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순음 아래 /으/가 이어져 실현될 때 /우/는 /으/와 비슷하나 다만 원순성을 자질로 하는 음소이기 때문에 이 /으/가 양순음의 영향으로 입술이 자연적으로 오프라지기 때문이다.

원순모음화는 통시적으로 18세기 국어에서 이미 어두의 양순음(ㅁ, ㅂ, ㅍ, ㅃ) 아래의 /으/ → [우]로 변화를 실현하였다(i→u/+labials__). 그렇기 때문에 현대 국어 및 방언에서 어두의 원순모음화는 ‘[읍다] → [웁다](없다), [웁지](없지), [웁서](없어), [웁내] → [웁내](읍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음절 이하에서 원순모음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이웃하는 음절의 모음이 원순음 /우/나 /오/일 때도 그것을 닮아서 원순모음으로 발음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양순음이 아닌 /ㄴ/, /ㄹ/, /ㄱ/, /ㅇ/에 서도 일어난다.

- | | |
|---------------|----------|
| (51) 고름 | [고만](그만) |
| [도술비](다슬기) | [워노](어느) |
| 차춤 | |

(52) [국쟁이](극쟁이)	[마운](마흔)
[메누리](며느리)	미움
[부술떡](부스럼)	[아구배](아그배)
[아푸다](아프다)	[웁내](읍내)
[짱구다](잠그다)	

(51)의 /으/ → [오]의 변화형은 극히 드물고, [우]로 수의적 변이를 실현한다. (52)와 같이 /으/ → [우]로 [+rnd]화는 상당한 어휘가 실현된다. 이것은 그 원인이 선행 자음에 의한 원순 모음화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불완전한 모음이어서 [+high, +rnd]로 변한다(서보월 1982:11~12). 그러나 [+labials] 형태소 [밥+얼], [인삼+얼] 등 자음이 후행하면 [+rnd]는 실현되지 못하나, 용언의 경우 ‘[가풀](갸을), [노풀](늘을)’ 등 [+labials, +asp] 아래에서 원순모음화를 실현한다. /으/가 자음 없이 나타날 때 ‘[사부루](삼으로), [다무니](담으니)’와 같이 원순모음화를 실현한다.

또한 통시적으로 어말모음으로 이중모음을 지닌 어말 모음의 어휘들이 남부방언에서는 /우/로, 중부방언에서는 /이/로 변화하였는데 충남 방언에서는 두 어형이 공존한다(한영목 1999:30). 그러나 이돈주(1979)에서는 이 현상을 통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개재 자음의 특성에 따른 발음 작용상의 언어의 노력 경제의 경향으로 파악하고 있다.

(53) [꼬추](고치)	[겹줄](겹질)
[파루](파리)	[다루](다리)
[불구다](불리다)	[부주땡이](부지깽이)
[빨구](빨기)	[솔가루](솔가리)
[홍수](홍시)	

그 밖에 /어/ → [오](/ə/ → [o])²⁴⁾, /어/ → [우](/ə/ → [u])²⁵⁾, /아/ →

24) /먼지/ → [몬지~몬데기] /서캐/ → [소캐]

/얼마/ → [올마] /하러/ → [하로]

25) /돌쩌귀/ → [돌쫄기] /아버지/ → [아부지]

[오](/a/ → [o])²⁶⁾, /애/ → [왜](/ɛ/ → [wɛ])²⁷⁾ 등의 변화를 보이거나 극히 미미하다. /어/ → [워](/ə/ → [wə])의 변화는 단모음의 이중모음화에서 다루기로 한다.

4.4. 비원순모음화

이 현상은 후설성 모음(⊥, ㅓ)이 비원순 모음들로 전설모음화하는 일종의 전설모음화이다. 그러나 전설 모음화로써의 /으/ → [이], /어/ → [에], /아 → [애] 등은 움라우트에서 다루고, 여기에선 원순 모음 /오, 우/가 그밖에 비원순 모음으로 변이되는 현상을 고찰키로 한다.

4.4.1. /우/ → [이]

(54) [고니](고누)	[꼬치장](고추장)
[골미](골무)	[궁덩이](궁둥이)
[기실자](기술자)	[깍디기](깍두기)
[목심](목숨)	[미섭다](무섭다)
[빔짜리](빋자루)	[시염](수염)
[시집다](수줍다)	[심실](심술)
[아지머니](아주머니)	[옥시기](옥수수)
[콘시염](콧수염)	[한심](한숨)

(54)는 [+bk, +hg, +rnd] 자질 /우/가 [-bk, +hg, -rnd]인 /이/로 교체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 → [우](i → [u])로의 원순모음화보다 미약하다(한영목 2000

/없고/ → [웁고] /자전거/ → [자장구]
 26) /손가락/ → [손꼬락] /바구니/ → [보구리]
 /다슬기/ → [도솔비]
 27) /들깨/ → [들꽤]

르:258).

4.4.2. /오/ → [외] → [에]

- (55) [꾀기] → [폐기](포기)
[개똥이] → 개똥이
[괴기] → [계기](고기)
[되런님] → [테런님](도런님)
[똥그래미] → [똥그래미](동그래미)
[보기싫다] → [베기싫다](보기싫다)
[쇠주] → [썰주](소주)
[쇠기다] → [세기다](속이다)
[쪼그매] → [썰게매](조그매)

4.4.3. /우/ → [에] → [이]

- (56) [궁텅이] → [궁딩이](궁둥이)
[깍땨기] → [깍띠기](깍두기)
[깜베기] → [깜비기](깜부기)
[주똥이] → [주텅이] → [주딩이](주둥이)
[땨베기] → [땨비기](땨부기)

(55), (56)의 예들은 /오/ → [에], /우/ → [에]의 변화를 보여준다. 도수희(1977)는 /오/ → [에], /우/ → [에] 실현은 음라우트에 의한 /오 > 외/, /우 > 위/ 단계를 거쳐 단모음 /에/로 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 > 외/, /우 > 위/의 변화는 10모음 체계에서 ‘외’와 ‘에’는 전설·중모음으로서의 자질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순성에 의해 이들이 대립하고 있지만, 원순성이 유표적이어서 ‘외’가 ‘에’로 교체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충남 방언에서 /우 > 위/는 다시 /에/와 /이/의 공존형의 변화 과정을 보이

고 있어 ‘우 → 위 → 에 → 이’의 고모음화 단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⁸⁾

4.4.4. /오/ → [어/아]

(57) [머루](모루)	[뻘](본)
[번전](분전)	뽕나무
[퍼대기](포대기)	
(58) 그썸	양썸
[온썸](왼썸)	이썸
[자방틀](재봉틀)	저썸

(57), (58)은 /오/ → [어]나 /오/ → [아]의 변화를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원순모음화는 (57), (58) 현상들에 비해 비원순모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예외가 있어 규칙을 설정할 수 없이 주의적으로 실현된다. 한영목(1999 7:97)은 이러한 현상은 토박이들의 의식 속에서는 어색하지 않게 실현되는 모음 변동이라고 보았다.

4.5. 단모음의 이중모음화

4.5.1. /애/ → [야]

(59) [날](내일)	[밤](뱀)
[빨리하](빨리 해)	[삭시](색시)

28) 몽둥이 → 몽뉘이 → 몽뉘이 → 몽뉘이
모퉁이 → 모뉘이 → 모뉘이 → 모뉘이

주둥이 → 주뉘이 → 주뉘이 → 주뉘이

[삼~시암](쌈)

(59)은 /애/가 y계의 상승이중모음인 [야]로 변화된 현상이다. 이 변화는 y계 상승이중모음으로 /애/의 /야/만 나타나고 /위/→ [유], /에/ → [여], /외/ → [요]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도수희, 1977:12). 이 현상은 수의적이고, ‘-ㄴ대’의 어미의 경우 ‘-ㄴ다’로 이중모음으로 실현된다.²⁹⁾

4.5.2. /어/ → [워]

(60) [뵤](별)	[워노](어느)
[워뒤](어두워)	[워디~어테](어디)
[워디든지](어디든지)	[월루](어디로)
[워쩐](어떤)	[워트키~어트케](어떻게)
[워떠칼 수](어떡할 수)	[워짚 수](어쩔 수)
[워제](어제)	[워째서](어째서)
[워째](어찌)	[원제](언제)
[월마](얼마)	

충남 방언에서 단모음의 원순모음화는 그리 활발하지 않다.³⁰⁾ 그러나 원순성 이중모음화는 생산적이다. 원순성 이중모음화는 연기 지역어에서 (60)에서와 같이 의문사에 쓰이며, /w/의 첨가로 거의 [워]로 실현된다. 이 원순성 이중모음화도 충남 방언의 특징이라고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구어에서 쓰인다. 그러나 [워디~어테](어디), [워트키~어트케](어떻게) [어는날](어느 날)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원순모음화의 변화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9) [kiga kandya?](그가 간대?)

30) 우리말에서는 /어 → 으/로 모음 추이가 일어났고, 이는 다시 /으 → 우/(/업따 → 읍따 → 읍따/)(없다), /거짐말 → 그짐말 → 구짐말/(거짓말)로의 원순성 상승모음화를 확인할 수 있다.

4.6.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경향은 “서울 방언권에서 그 경향이 농후하다”고 최학근(1959)은 지적한 바 있다. 이것은 발음 활동의 경제에서 오는 현상으로써, 연기 지역어에서도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4.6.1. /예/ → [예]

(61) 경 게 [에 뻘다~여 뻘다](예 뻘다)

(61)는 /예/가 자음 아래서 [예]로 단모음화 하는 음운 현상으로 우리말에서는 보편적이다($ye \rightarrow e$ / +cons__). 연기 지역어에서 /예/는 두음으로 올 때만 실현되고(예절, 옛날, 예순, 예배당...) 자음 아래에서는 /y/가 탈락하여 단모음화가 거의 절대적이다.

4.6.2. /여/ → [예/어]

(62) [게우](겨우)	[쟁게](정제)
[담빠락](담벼락)	[등게](등겨)
[메베](매벼)	[메누리 ~ 미누리](며느리)
[메칠](머칠)	[맨서기](먼서기)
[멘장](먼장)	[메르치](멀치)
[멧해](멧 해)	[멧일](명일)
[멧태](명태)	[베](벼)
[베루](벼루)	[베락](벼락)
[베룩](벼룩)	[베리다](벼리다)
[베슬](벼슬)	[베름빡 ~ 벼름빡](벽)

[벤덕 ~ 빈덕](변덕)	[벤벤치](변변치)
[벤소](변소)	[벨루](별로)
[벨미](별미)	[벨수](별수)
[벨일](별일)	[벨호](별호)
뱌씨	뱌
뱌가리	뱌단
[뱌신 ~ 뱌신](뱌신)	뱌아리
분뱌히	뱌
뱌대	[에뱌네](여뱌네)
올뱌	

(63) 견썸	[저](겨)
[저드랑](겨드랑)	[전디다](견디다)
[절국](결국)	[절혼](결혼)
[점사점사](검사검사)	[점견](견것)
[점온](견온)	[정대](견대)
[정상도](견상도)	[정익따](견익따)
[정황업따](견황업따)	[겨뚜리](견뚜리)
[전뱌](견뱌)	[저테](견테)
[디꺼티](뒤견에)	뒤견
새벽	[곤저](속겨)
[쌀저](쌀겨)	[왕저 ~ 뱌겨 ~ 뱌게](왕겨)
컬레	[서](혀)
[섬력](협력)	[신바닥](혀바닥)
[성](형)	[성세](형세)
[성수](형수)	

(62)과 같이 이중모음 /여/는 순음 아래에서는 [에]로 단모음화를 거의 실현한다. 이 단모음화는 ‘yə→e/+lilabials__’로 규칙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도 변화고 있다.³¹⁾ 유창돈(1961)에 따르면 국어 변천사에서 /여 → 에/ 변화형은 방언에는 더욱 강력히 작용하고, 모든 자음 밑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로 보고

있다.³²⁾(결 > 겔, 여자 > 네자, 폐기 > 폐기, 처녀 > 처네, 혀다 > 혀다) 그러나 이 변이는 순음 아래라는 공통점은 이돈주(1969)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 현상은 연기 지역어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장년층 이하에서도 /여/로 실현하려는 경향을 보여 “별~벨(별), 명지~맹지(명주), 면도~멘도(면도)”와 같이 두 어형이 교체된다.

(63)는 연구개 평자음인 /ㄱ/과 /ㅎ/ 아래에서는 구개음화를 거쳐 /어/로 실현된다. 즉 /y/의 영향으로 구개음화를 실현하고, /y/를 탈락하며, [+str] 아래에서 탈락하여 [에]로 실현된다. /겨/의 단모음화 과정을 보면 1단계로 /ㄱ/이 구개음화 과정을 거쳐 /ㅈ/로 변화하고, 2단계로 조음작용이 구개음으로 변화되면서 /y/의 음가가 사라진다. 결국 ‘겨 → 저 → 저’의 변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한영목(2000:51)은 /여/ → [에], /여/ → [어] 현상은 변자음 아래에서 실현되는데 [-back, -cor] 아래에서는 같은 [-back]인 [에]로, [+back, -cor] 아래에서는 [+back]인 [어]로 변화된다고 보았다.

4.6.3. /야/ → [아]

- | | |
|---------------------|------------|
| (64)a. [자룩하다](가름하다) | [자우똥](가우똥) |
| [잘쭈](갈쭈) | 달갈 |
| 뽀 | 성냥 |
| [상불](향불) | |
| b. [냥반](양반) | 양썩 |
| [야타](알다) | |

(64)a의 /야/ → [아]로의 변화형은 자음 아래에서 나타난다. /ㅈ/가 어두에 올 때는 단모음화를 실현하고, (64)b처럼 어두 /야/는 이중모음을 지닌다.

31) [빈덕](변덕), [미누리](며느리), [빙신](병신)

32) 이광호(1978:164)에서는 $yV \rightarrow Vy/c_$ 라는 음운 규칙에 의하여 이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 현상은 [+labials]아래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4.6.4. /위/ → [우/이]

(65) [게우](거위)	[구신 ~ 기신](귀신)
[구찬타 ~ 기찬타](귀찮다)	[구하다](귀하다)
[까마구](까마귀)	[누](늪)
[두지](뒤지)	[바우](바위)
[바쿠이 ~ 바퀴](바퀴)	[박지](박쥐)
[방구](방귀)	[사마구이 ~ 사마귀](사마귀)
[사우](사위)	[썸바구](썸바귀)
웁말	[기저구](기저귀)
우이	
(66) [구이 ~ 기](귀)	[기저기](기저귀)
[까마기](까마귀)	[니](늪)
[다람지](다람쥐)	[디](뒤)
[디칸](뒷간)	[디지](뒤주)
[디지다](뒤지다)	[딩글다](뒹글다)
[떠다](뛰다)	[바늘기](바늘귀)
[바쿠이 ~ 바키](바퀴)	[사마구이 ~ 사마기](사마귀)
[시](쉬)	시깔리다
[신밥](션밥)	[십따](쉽다)
[입사기](입사귀)	[지저기](기저귀)
[치직](취직)	[지불노리](쥐불놀이)

(65), (66)은 이중모음 /위/가 자음 아래 /w/를 탈락하여 /이/로 단모음화하는 경우와 /y/계 이중모음 /uy/에 /y/가 탈락하여 /우/를 남기고 어말 /우/형으로 변화된다. 따라서 /wi/는 기저 표시를 /uy/로 잡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wi/가 [u]로 실현하는 경우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이광호 1978:183). 연기 지역어에서 이중모음 /위/가 /우/와 /이/로 양형의 교체를 보

여주나 노년층의 언어에서는 아직도 이중모음으로 실현된다.(귀신~구이신)

4.6.5. /외/ → [오/에]

(67) [소시랑](쇠스랑)	[소죽](쇠죽)
[오판집](외판집)	[오삼춘](외삼춘)
[오아들](외아들)	[오양간](외양간)
[온짝~엔쪽](왼쪽)	[모이짜리~모짜리](뫓자리)
[오이갓집](외갓집)	
(68) [게짜](괴짜)	[겐다](귤다)
[겡장하다](굉장하다)	[꼬이병~께병](괴병)
[세](쇠)	[세똥이](쇠똥이)
[소시랑~세스랑](쇠스랑)	[수썰](수쇠)
[암세](암쇠)	[열세](열쇠)
[엔손](왼손)	[엔쪽](왼쪽)

(67)는 ‘외’ 모음이 ‘오’로 단모음화된 예들이고, (68)은 ‘외’ 모음이 ‘에’로 단모음화된 예들이다. 그러나 여기에 없는 ‘뫓(墓)’나 ‘외(外)’는 단모음화되지 않고 하강이중모음 ‘oy’로 실현되어 ‘moyc’ari(뫓자리), oygat`c’ip(외갓집)’이라고 한다. 하강이중모음이 아직 충청방언 상에 남아있는데(도수희 1977:98), 이 지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4.6.6. /왜/ → [애]

(69) [겐찬타](괘찬다)	[깽매기](괘과리)
[개썰하다](괘썰하다)	[개니](괘히)
[때기](뽕기)	[도야지~대지](돼지)

(69)의 실현은 ‘/왜/ → [애](/wε → ε/)’로 쓰이고, 꽤이, [돼지울](돼지우리) [꽤](꽤기) 등이 공존하나 [애]로의 단모음화가 우세하다.

이처럼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현상은 다양하게 실현되나 수의적이다.

4.7. 모음 탈락

모음 탈락은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에 의하여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모음 탈락은 어휘 형태소와 형태소 경계에서 관찰되고 있다. 모음 탈락으로는 어간 말 ‘으’ 탈락, 어간 말 ‘이’ 탈락, 어미 초 ‘으’ 탈락, 어간말 ‘어’나 ‘아’ 탈락, 계사 ‘이’ 탈락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쓰+어서/ → [써서]/ /쓰+구/ → [쓰구] (書)’에서 볼 수 있는 어간말 ‘으’ 탈락이나 ‘/가+어서/ → [가서](去), /서+어서/ → [서서](立)’에서 볼 수 있는 어간말 ‘아’나 ‘어’ 탈락, ‘/소+이+다/ → [소다](牛)’에서 볼 수 있는 계사 ‘이’의 탈락은 국어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음운이다(최명옥·한성우 2001:240).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어휘 내부에서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70)와 (71)는 어휘 형태소 내부에서 모음이 탈락하는 예들로, (70)는 어중 모음 탈락 현상을, (71)은 어말 모음의 탈락을 보여주는 어휘들이다. (70)는 모음이 탈락하면서 대체로 장음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71)는 어말 모음 ‘이’와 ‘우’([구렌날])가 탈락한 것이다. [기저구, 기저기](기저귀)와 같은 어휘는 ‘이’ 또는 ‘우’가 탈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이중 모음의 단모음화로 이미 다루었다.

(70) [갈쳐](가르치어)

[갈:](가을)

[끄:름](그을음)

[비다](보이다)

[섬:](수염)

[첨:~춤](처음)

[갈켜](가리키어)

[걱서](거기서)

[맘:](마음)

[쌈](싸움)

[질:](제일)

[태가지구](태워가지고)

(71) [달물](달무리)

[시누](시누이)

[우렁](우렁이)

[해물](햇무리)

[돼지울](돼지우리)

[썩](썩기)

[폭](포기)

[구렌날](구레나룻)

제5장 결 론

지금까지 충남 연기 지역어의 음운체계와 음운 현상의 특징을 모음과 자음의 음운 현상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살펴본 내용을 부문별로 간단히 요약하고 연기 지역어의 음운상의 특징을 뽑아 제시하면서 결론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1. 자음 목록은 /ㅂ/, /ㅍ/, /ㅃ/, /ㅍ/, /ㄷ/, /ㅌ/, /ㅊ/, /ㅊ/, /ㅅ/, /ㅆ/, /ㄴ/, /ㄹ/, /ㅈ/, /ㅊ/, /ㅆ/, /ㄱ/, /ㅋ/, /ㆁ/, /ㅇ/, /ㅎ/이다. 단모음은 /ㅣ/, /ㅘ/, /ㅙ/, /ㅚ/, /ㅛ/, /ㅜ/, /ㅡ/, /ㅓ/, /ㅗ/, /ㅜ/, /ㅗ/ 10개로 중앙어와 같으며 활음으로는 /y/, /w/가 있다. 이중모음으로는 /야/, /여/, /요/, /유/, /애/, /예/, /이으/, /으이/, /와/, /워/, /웨/, /왜/, /위/가 있다.

2. 평파열음화는 음의 내파화로 자음동화 현상을 촉발시키는데, 연기 지역어에서는 생산적이다. 연기 지역어에서 형태소 경계를 사이에 두고 종속적 형태소의 모음이 뒤따를 때에는 음절말 자음의 원음이 그대로 연음되는 경우와 웃어른, [꼬단](꽃안)처럼 후행모음에 그대로 연음되지 않고 중화되어 연음되는 경우도 나타난다.

3. 어두경음화 현상은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일정한 음운 규칙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 어중경음화 현상은 형태소 경계에서 선행 형태소의 끝자음이 [-son]인 경우는 어김없이 나타나며, 복합어의 경우는 모음이나 공명음에 상관없이 나타나고 있다. [담벼락-담배락], [손가락-손꼬락]과 같이 복합어 중 선행어의 말음이 모음이나 유성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경음화를 수행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잇소리의 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4. 유기음화는 일종의 강화 현상으로 조건 없이 무기음이 유기음으로 변하는 현상과 공시적 음운 변이로 나타난다. 공시적 음운 변이의 유기음화는 중앙어와 마찬가지로 자음 축약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자음 축약의 유기음화는 곡용, 활용, 파생, 합성어 등 어떤 경우에 나타난다. 그러나 비음이나 유음이 앞 혹은 뒤에 올 때와 마찰음 /ㅅ/이 뒤에 올 때는 유기음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

5. 연기 지역어의 자음군 단순화 현상은 /ㄹ/과 /ㄴ/, /ㄷ/을 제외하고는 [-cor, +son]은 남고 [+cor, -son]은 삭제된다. [+son]과 [-cor]의 배합에서 수의적으로 [-cor]와 [+son]이 남지만, [-cor]가 우세한데 이것은 강도상 [-cor]가 강하기 때문이다.

6. 어두 자음의 구개음화 현상은 /ㄱ → ㄷ/와 /ㅎ → ㅅ/이다. 통시적으로 /의 >이/로 변하는 경우 구개음화를 실현하지 못한다. 그러나 [시다](희다), [시망](희망), [시사](회사), [시꾼](희끗)등에서 거의 구개음화를 실현하고 있다. 공시적 구개음화는 파생 접미사 ‘-히, -이’에 의한 /ㄷ → ㄷ/ 뿐이다.

7. 유성음화는 국어 일반의 규칙이 적용되고 있으나 복합어 형성 시 유성음 사이의 무성음이 유성음화 되지 않는 예와 유성음화로 나타나는 예들이 있으므로 복합어 형성 시의 유성음화는 수의적으로 나타난다.

8. 마찰음화는 후속 어미에 따라 수의적으로 나타나지만 적극적인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처격 조사가 폐구조화된 경우는 마찰음화는 실현되지 못하고, 격조사 이외의 형태소가 올 때는 마찰음화 대신 약화 현상이 나타난다.

9. 유음화는 /ㄴ/이 선행 /ㄷ/계 음절말 자음군이 /ㄷ/로 단순화된 후에 유음화가 일어나고 있다. 연기 지역어에서는 어간말이 /ㄷ/로 시작하는 자음군일 때 일어나며 그 경우에도 /ㄷ/뒤의 자음이 /ㅌ/이나 /ㅎ/일 때 한하여 일어난다.

10. 자음의 첨가로는 ‘ㄷ’ 첨가, ‘ㄴ’ 첨가, ‘ㅇ’ 첨가가 적극적으로 실현되고 있고, 자음의 탈락으로는 ‘ㄴ’ 탈락, ‘ㅅ’ 탈락, ‘ㅎ’ 탈락이 나타나고 있다. 한중간 자음 유지 현상이 실현되고 있다.

11. 모음 상승은 /에 → 이/, /어 → 으/, /오 → 우/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모음 상승의 폐구조화 현상은 특히 비어두 위치에서 /오 → 우/의 변화의 적극성은 부사어는 물론 조사와 어미 같은 문법 형태소에서도 발견된다. 또 /요 → 유/로 실현되는 경우도 발견된다.

12. 움라우트는 동화주와의 사이에 [+grave] 자음이 개재할 때 보편성을 띠며 생산적이다. [-grave]인 /ㄷ/이 개재된 자음도 움라우트가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개재 자음이 모두 [r]인 경우에만 나타나고 [+lateral]인 [l]인 경우에는 움라우트를 외면한다.

13. 원순모음화 /으 → 오/, /으 → 우/가 대표적이다. /으 → 오/의 변화형은 극히 드물고, /으 → 우/로 [+rnd]화는 상당한 어휘가 실현된다.

14. 비원순모음화는 일종의 전설모음화 현상으로 /우 → 이/, /외 → 에/, /우 → 에 → 이/가 대표적이나 비원순모음화가 실현되지 않은 예외가 있어 규칙을 설정할 수 없이 수의적으로 실현된다.

15. 단모음화의 이중모음화의 변이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원순성 이중모음화는 연기 지역어에서 의문사에 쓰이며, /w/의 첨가로 거의 /워/로 실현된다. 그러나 [워디~어데](어디), [워트키~어트케](어떻게)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원순모음화의 변화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 이중모음의 단모음화는 발음 활동의 경제에서 오는 현상으로써, 연기 지역어에서도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여 → 에/, /여 → 어/, /위 → 우/, /위 → 이/가 대표적이다. /여 → 에/의 변화는 연기 지역어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장년층 이하에서도 /여/로 실현하려는 경향을 보여 두 어형이 교체된다. 또한 /위/가 /우/와 /이/로 양형의 교체를 보여주나 노년층의 언어에서는 아직도 이중모음으로 실현되고 있다.

17. 어휘 내부에서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으나 적극적이지는 못하다

18. 연기 지역어의 특징은 다른 충남 1지역어와 음운상으로 크게 다를 바 없으나, 대체로 어두 경음화나 어두 유기음화, ‘ㄱ’구개음화, ‘ㅎ’구개음화, 움라우트, 단모음화의 경향이 특히 강한 지역어이고, 체언 말 설단 자음의 마찰음화가 일반적이지 않아서 파찰음(ㅈ, ㅊ)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으며, 모음 상승과 전설모음화가 적극적으로 실현되며 원순모음화보다 비원순모음화의 예가 더 많이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참고 문헌

- 강병륜(1996), 충청남도 방언에 나타나는 유성자음 [g] 탈락의 언어지리학적인 연구, 《웅진어문학》 4,
- 강창석(1984), 국어음절구조와 음운현상, 국어학 13
- 강희숙(2005), 고모음화의 실현과 방언 분화 -전남 방언과 서울말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33
- 고광모(1991), 《국어의 보상적 장음화 연구》,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곽충구(1982), 아산지역어의 이중모음변화와 이중모음화 -y계 이중모음과 ə> wə변화를 중심으로-, 《방언》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곽충구(1982), 중부 방언의 특징과 성격, 《한국어문》 4, 한국정신문화원
- 곽충구(1984), 체언 어간말 설단자음의 마찰음화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91, 국어국문학회
- 곽충구(1996), 충남방언, 《한글 사랑》, 96년 겨울호(통권 3호).
- 권미영(1998), 강경 지역어의 공시음운론적 연구, 인하대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김시중(1985), 충남 청양 지역어의 조사 연구, 단국대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김시중(1992), 충남 방언의 주격조사 연구, 《홍익어문》 10·11, 홍익대 국어교육과.
- 김시중(1996), 충남 청양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김영진·권오주(1998), 대전 사회방언의 계층별 연구, 《인문과학논문집》 26, 대전대학교.
- 김영진·서은영(1999), 대전 사회방언의 세대별 연구, 《인문과학논문집》 27, 대전대학교.
- 김영진·이정애(1997), 대전 사회방언 연구(2)- 성별을 중심으로, 《인문과학논문집》 27, 대전대학교.
- 김완진(1980), 홍성지방의 방언, 《홍성군지》, 홍성군지편
- 김용배(1991), 《전라남도 방언 연구》, 학고방.

- 김원중(1988), 예산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태(2002), 충남 천안방언의 움라우트에 대하여, 우리말글 25, 우리말글학회.
- 김정태(2003), 천안방언의 모음상승에 대하여(1), 어문연구 43.
- 김진우(1971), 국어음운론에 있어서 공모성, 어문연구 7, 어문연구회
- 김차균(1987), 어말자음군 단순화 원칙에 대한 연구, 설태박요순선생회갑기념논총
- 김차균(1988), 《나랏말의 소리》, 태학사
- 김차균(1999), 《우리말의 시제 구조와 상 인식》, 태학사.
- 김충희(1984), 충청북도의 방언구획 시론, 방언 7.
- 김형규(1972), 충청남북도 방언연구, 《학술원 논문집》 제11집, 학술원
- 김형규(1974), 《한국방언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도수희(1965), 충청도 방언의 위치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28.
- 도수희(1977), 충남 방언의 모음변화에 대하여, 《이승녕선생 고회기념논총, 탑출판사
- 도수희(1979), 충청도의 언어, 《충청남도지》 하권, 도지편찬위원회
- 도수희(1981), 충남방언의 움라우트현상, 《방언》 5, 한국정신문화원
- 도수희(1987), 충청도 방언의 특징과 그 연구, 《국어생활》 9, 국립국어연구원.
- 류구상(1970), 병천지방어의 형태론적 고찰, 《어문논집》 12, 고려대 국어국문연구회.
- 류구상(1971), 병천지방 말의 음운론적 고찰, 《한글》 147, 한글학회
- 류구상(1992), 천안 지방말의 경어법, 《한남어문학》 17·18, 한남대 국어국문학회.
- 류구상(1994), 천안지방어의 불규칙 용언, 《우리말 연구의 샘터》 도수희선생회갑기념논총, 문경출판사.
- 류구상(1996), 《천안지역어연구》, 한남대학교 출판부
- 박광호(1983), 서산지역어의 형태론적 연구, 《동악어문논집》 17, 동악어문

학회.

박광호(1983), 충청남도방언의 음운론적 연구(Ⅰ) -서산, 당진, 예산, 홍성 지방을 중심으로-, 《논문집》 V집, 대유공업전문대학.

박영환(1986), 대덕 지역어의 음운, 《언어연구》 3, 한국현대언어학회

박영환(1997), 충청 지역어의 지시어, 《충청문화연구》 5-2.

박종익(2000), 《한국구전설화집 3》, 서울: 민속원.

방언연구회 편(2001), 《방언학 사전》, 태학사.

서금덕(2000), 공주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논문).

성낙수(1973), 충남 당진지방 방언의 연구(1), 《연세어문학》 4, 연세대학교.

성낙수(1973), 충남 당진지방방언의 동사류 접미사 연구(Ⅰ), 《국어국문학》 61, 국어국문학회.

성낙수(1977), 충남 당진 지방 방언의 통사론적 연구, 《말》 2, 연세대 한국어학당.

성낙수(1985), 충청당진지방의 방언의 동사류 접미사 [-m], [-kan] 연구, 《교수논문집》 1, 한국교원대.

성낙수(1993), 《우리말 방언학》, 한국문화사.

성희제(2000), 충남방언 올라우트 현상의 유형 연구, 《어문학》 71. 한국어문학회.

성희제(2001), 원순모음화현상 연구, 우리말글 23. 우리말글학회.

소강춘(1989), 《방언분화의 음운론적 연구》, 한신문화사.

안용산 엮음(1996), 《설화 속의 금산》, 충남: 금산문화원.

유창돈(1961), 《국어사 연구》, 이우출판사

이기문(1982), 《국어음운사 연구》, 탑출판사

이돈주(1969), 전라방언에 대한 고찰, 어문학논총, 어문학논집 5. 전남대학교

이돈주(1978), 《전남방언》, 형설출판사.

이병근·곽충구(1998), 《방언》, 태학사.

이상규(2003), 《국어방언학》, 학연사.

이원직(1996), 충남방언 연구, 《한국어학》 3, 한국어학회

- 이원직·허삼복(1996), 음절말 자음군의 단순화 현상, 《한밭한글》 1, 한글학회 대전지회.
- 이익섭(1970), 전라북도 동북부 지역어의 언어분화, 《어학연구》 6-1, 서울대어학연구소.
- 이익섭(1984), 《방언학》, 민음사.
- 이재춘(1998), 19세기 말 서천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초학요선》을 중심으로-, 《단국어문논집》 2, 단국대학교
- 전광현(1979), 중부방언연구에 대한 검토, 《방언》 1, 한국정신문화원.
- 전병철(1991), 금산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충북대 대학원(석사 논문).
- 전병철(1997), 금산 지역어의 음운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충북대 대학원(박사 논문).
- 전병철(1997), 금산 지역어의 자음변화에 대한 세대별 비교연구, 《오당 조항근선생 화갑기념논총》,
- 전익진(1993), 충남 당진 지방 방언의 받침소리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논문).
- 정원수(1999), 대전 토박이말의 언어적 위상과 음운체계, 《언어》 20, 충남대어학연구소.
- 정원수(2002), 충남 서해안 지역어 대화문의 운율 분석 시론, 《어문연구》 40, 어문연구학회.
- 정진영(1990), 충남 당진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논문).
- 조성귀(1983), 옥천 방언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석사논문)
- 조성미(1996), 보령 주포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충남대 교육대학원
- 조지원문화원편(1992), 《연기민속》
- 진종진(1989), 서산방언의 격어미 연구, 국민대 교육대학원(석사논문).
- 최명옥(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 출판부
- 최명옥(1989), 한국 움라우트 연구사적 고찰, 《주시경학보》 3
- 최명옥·한성우(2001), 충남방언 연구, 《국어국문학》 129, 국어국문학회.

229-249.

- 최전승(1986),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음운현상과 그 역사성》, 한신문화사
- 최전승(1995), 《한국어 방언사 연구》, 태학사.
- 최태영(1977), 국어마찰음화고, 이송녕선생고회 기념논총
- 최태영(1983), 《방언음운론》, 형설출판사
- 최태영(1989), 예산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이정정연찬선생 화갑기념논총》, 답출판사
- 최학근(1959), 《방언연구서설》, 동학사.
- 최학근(1978), 《한국방언사전》, 현문사
- 한국방언학회편(1973), 《국어방언학》, 형설출판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2), 《한국구비문학대계-충남편:대덕군, 공주군, 아산군, 부여군, 보령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90), 《한국방언 자료집》 IV(충남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성우(1996), 당진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 141, 국어연구회
- 한영목(1983), 금산 지방 방언의 고찰, 《목원어문학》 4, 목원대 국어교육과.
- 한영목(1987), 금산지방의 방언연구, 《논문집》 24-1,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 한영목(1987ㄴ), 충남지방의 방언, 《우리고장 충남》 3,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 한영목(1989), 충청남도 방언에 대하여, 《학림》 7,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회
- 한영목(1991), 충남방언의 고찰, 《김영배교수 화갑기념논총》, 경운출판사.
- 한영목(1998), 충남방언의 현상과 특징에 대한 연구, 《방언학과 국어학》, 태학사.
- 한영목(1999ㄱ), 《충남 방언의 연구와 자료》, 이회문화사.
- 한영목(1999ㄴ), 충남 방언의 통사론적 연구 -어말 어미-, 《어문연구》 32, 어문연구학회.
- 한영목(2000ㄱ), 충남 방언 통사론의 몇 문제, 《학림》 17집, 충남대 국어국문학회.
- 한영목(2000ㄴ), 충남 방언의 보조 용언과 상, 《어문연구》 33, 어문연구학회.

- 한영목(2000ㄷ), 보조 용언 ‘-번지다’, ‘-쌓다’와 충남 방언, 《한글》 249, 한글학회.
- 한영목(2000ㄹ), 《충남 금산 지역어 연구》, 한국문화사.
- 한영목(2001ㄱ), 충남 방언의 격조사, 《어문연구》 35, 어문연구학회.
- 한영목(2001ㄴ), 충남 방언 어미 ‘-데’와 ‘-다’의 연구, 《한국언어문학》 47, 한국언어문학회.
- 한영목(2001ㄷ), 충남 방언의 보조 용언(1), 《한발한글》 6, 한글학회 대전지회.
- 한영목(2002), 충남 방언 ‘-벼’와 ‘-깨미’ 구문 연구, 《어문연구》 40, 어문연구학회.
- 한영목(2003ㄱ), 이문구 소설의 방언 연구 -모음 현상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43, 어문연구학회.
- 한영목(2003ㄴ), 충남 방언의 격표지 연구, 《한국어문학 연구의 지평》, 봉소 김동기교수정년기념논문집.
- 한영목(2004), 방언과 문학의 만남-이문구 소설의 움라우트 현상-, 學林 22. 충남대 국어국문학과.
- 한영목(2004ㄱ), 충남 방언의 보조사 연구 (1), 《우리말글》 30, 우리말글학회. 47-80.
- 한영목(2004ㄴ), 충남 방언의 보조사 (2), 《어문연구》 44, 어문연구학회. 161-193.
- 한영목·현정해(1996), 개천 방언의 음운 연구, 《한발한글》 1, 한글학회 대전지회.
- 한영목 옮김(1993), 생성문법과 언어능력, 태학사.
- 홍문각(1996), 《방언학 연구 논문집》, 홍문각 편집실.
- 홍윤표(1991), 《초학요선》과 19세기말 충남 서천 지역어,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 황인권(1990), 보령군 웅천지역어의 음운현상에 대하여(3), 《한국어학신연구》, 한국어학연구회편

- 황인권(1991), 충남보령지역어의 음운연구, 고려대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황인권(1999), 《한국 방언 연구 -충남편》, 국학자료원.
- 황인권(2004), 충남서천지역어의 연구, 《우리말글》, 우리말글학회.
- 황인권(2004), 충남 서천지역어의 자음변화에 대하여(1), 우리말글 30.
- 황인덕 편저(2001), 《대덕의 구전설화》, 대전: 대덕문화원.
- 小倉進平(1944), 《朝鮮語方言の研究》, 岩波書店.
- 鈴木潤(1995), 대전지역 대학생의 방언의식, 대전대 대학원(석사논문).
- 鈴木潤(1995), 충남방언형 ‘기-’와 ‘-냐’ 사용의 남녀차, 세대차에 대하여, 《대전어문학》 11, 대전대
- 河野六郎(1945), 《朝鮮語方言學試攷》, 東都書籍.
- Chambers, J. K. & Trudgill, P.(1980), *Dialectology*, Cambridge Univ. Press.
- Chomsky, N. & Halle, M(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Harper& Row Publishers
- Hopper, P. & Tragott, E.(1993), *Grammaticalizations*, Cambridge Univ. Press.
- Lyons, J.(1981), *Language and Linguistics*, Cambridge Univ. Press.
- Schane, S. A.(1973), *Generative Phonology*, Prentice Hall, Inc.
- Sloat, C. et al.(1978), *An Introduction to Phonology*, Prentice Hall, Inc.
- Wakelin, M. F.(1977), *English Dialect ; An Introduction*, London : Athlone Press.

ABSTRACT^{* 33)}

A Phonological Study on Yeongi Dialect

Jun Ryu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oung-Mok Han)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 that is a phonology of Yeongi Dialect which is a sub dialect of Chungnam Dialect. This Yeongi Dialect is located in the center of Chungnam Dialect and is worth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a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conferred in February 2006.

studying on Korean dialectology and linguistic sociology. There is this dialect with a seat to the way point where Kyunggi Dialect is used together with Cholla Dialect. First of all, I set up a phoneme system about an Yeungi dialect and am going to consider the phoneme process that is a synchronic phonological processes with an early base.

There are 19 consonants, 10 vowel sound and 2 semivowel of Yeun-gi dialectal phoneme.

consonant : p, p', p^h; t, t', t^h; s, s'; c, c', c^h; k, k', k^h; h; m, n, ŋ; r

vowel sound : i, e, ε, ü, ö, i, ə, a, u, o

glides : y, w

I look into a synchronic phonological processes of Yeungi dialect with a thing about a consonant and a thing about a vowel sound.

A phoneme phenomenon of a consonant

neutralization, glottalization, aspirated, simplification of consonant clusters, palatalization, vocalization, fricative, liquidization, consonantal addition, consonantal deletion, middle consonant maintenance phenomenon

A phoneme phenomenon of a vowel sound

vowels rising, umlaut, rounding labialization, non-round lip vowel sound, diphthong vowel sound of a monophthong, monophthong sound of a diphthong vowel, vowel addition, vowel deletion

Different thing is not to the first dialect and phoneme quotient of different Chung-nam Province, but generally a heading fortes, a

heading aspirated sound, a 'k' palatalization, a 'h' palatalization, an umlaut and inclination of monophthong are specially strong dialects. There are a lot of cases a fricative sound of a ending-substantives the tip of the tongue consonant is not general, and to have appeared by an affricate (c, c^h). And a vowel rising sound and a blade vowel sound are actively realized and an example of non-round lip vowel sound has a characteristic to appear more and more very much than a round lip vowel sound.

연기지역어의 자료

[neda]((곡식) 사다)	[kay](개)
[sada]((곡식) 팔다)	[k'ɛguri, k'ɛgurakci](개구리)
[kaseŋi](가)	[casimmul](개숫물)
[k'ak'ap ^h ada](가갑하다)	[kɛgim](개암)
[kanya](가느냐)	[carik ^h ada](가름하다)
[kit'ikː](가뜩)	[cautimhada](가우듬하다)
[hint'əkkarɛ](가래떡)	[c'alc'uk](갈죽)
[keripːt'a](가렵다)	[kəgi, kigi](거기)
[kallida](가르다)	[keta](거기다)
[karimma, karimɛ](가르마)	[kəllu, killu](거리로)
[kalc ^h yə](가르쳐)	[kəksə](거기서)
[kalk ^h yə](가르켜)	[kəp ^h u](거듭)
[kamɛ](가마)	[kiragu](거라고)
[kamɪnsə](가면서)	[k'ərik'ida](거리끼다)
[kɛpipːt'a, kɛpupːt'a](가뻗다)	[kiməri](거머리)
[kasim](가슴)	[kipukːt'a](거북하다)
[kasil](가슬)	[kəsillida](거스르다)
[k'asi](가시)	[kəsillimdon](거스름돈)
[kayu](가오)	[sek'yəŋ](거울)
[kase](가위)	[keu](거위)
[kal](가을)	[kici](거지)
[kacigo](가지고)	[kicimmal](거짓말)
[kənsinhi](간신히)	[kinnida, kinnəda](건너다)
[cirəŋ](간장)	[kəmt'a](검다)
[kalk'ayu](갈까요)	[tulc'əsonk'orakː](검지손가락)
[kallamɪn](가려면)	[kindi](것인데)
[k'alc ^h i, k ^h alc ^h i](갈치)	[kətcə](겉겨)
[kalk ^h i](갈퀴)	[kiy](게)
[kaŋgi](감기)	[cə](겨)
[k'annanɛgi](갓난아이)	[cyənunda](겨눈다)
[kat ^h indisə](같은 곳에서)	[cədirəŋ](겨드랑)

[keu, ceu](겨우)
 [cyəul](겨울)
 [cəndida](견디다)
 [cəndilsəŋ](견딜성)
 [cəlgukː](결국)
 [cəlhon](결혼)
 [cəmsacəmsa](검사겸사)
 [cəpotː](겹옷)
 [cəpːt'a](겹다)
 [kyəŋge](경계)
 [ciŋdɛ](경대)
 [ciŋsaŋdo](경상도)
 [cəŋikːt'a](경읽다)
 [cəŋge](경제)
 [cəŋhwaŋəpːt'a](경황없다)
 [kyət'uri](결두리)
 [cətːp'aŋ](결방)
 [cətːs'öcil](결쇠질)
 [cət^he, cət^hi](결에)
 [ci](계)
 [cidon](계돈)
 [cimo](계모)
 [cisu](계수)
 [cisida](계시다)
 [cisu, kisyu](계시어요)
 [kyecie](계제에)
 [cicipː, kicipː](계집)
 [k'okɛŋi](고갱이)
 [kögi, koygi](고기)
 [koni, konno](고누)
 [kodire, kodiremi](고드름)
 [kodilp'ɛŋi](고들빼기)
 [korɛgunyəkː](고래구멍)

[kollida](고르다)
 [korom](고름)
 [k'orinnɛ](고린내)
 [komulge](고무래)
 [k'obi](고비)
 [k'op'ɛŋi, k'op'i](고빼)
 [kosəŋ](고생)
 [koɛŋi, keŋi](고양이)
 [koyəm](고음)
 [k'ocɛŋi](고쟁이)
 [k'oc^hu](고추)
 [k'oc^hicaŋ](고추장)
 [k'oc^hi](고치)
 [kokːs'əkː](곡식)
 [kolmi, kolmo](골무)
 [komt'a](끓다)
 [kombu](곰보)
 [koŋdoŋmöci,](공동묘지)
 [kwasil](과일)
 [kaca](과자)
 [kwalsihada](팔세하다)
 [k'waŋcuri, k'waŋuri](광주리)
 [kɛs'imhada](괘씸하다)
 [kɛnc^hanyu](괘찮아유)
 [kɛni](괘히)
 [k'wɛŋi, k'ok'ɛŋi](괘이)
 [kec'a](괴짜)
 [kenda](뀐다)
 [keŋcaŋhada](굉장하다)
 [k'ugyəcida](구겨지다)
 [kügyəŋ](구경)
 [k'ugida](구기다)
 [kudegi, kudigi](구더기)

[kudiŋi](구덩이)
 [kureŋi](구렁이)
 [kurennal](구레나룻)
 [kullinda](구르다)
 [k'urinne, k^hurinne](구린내)
 [kunyək ʔ, kunyən](구멍)
 [kut^hiŋi](구석)
 [kusil](구슬)
 [kusip ʔ](구습)
 [kusu](구유)
 [k'ucyənɲmul](구정물)
 [məlɣuk ʔ](국물)
 [kuk^ha](국화)
 [kuc^hida](굳히다)
 [kuŋgullida](굴리다)
 [kuŋdeŋi, kuŋdiŋi](궁둥이)
 [kwec'ak ʔ](궤)
 [kuy, ki](귀)
 [kusin](귀신)
 [kip'ap ʔ](귀에지)
 [kuyəp ʔk'e](귀엽게)
 [kücige](귀이개)
 [kuc^hant^ha](귀찮다)
 [kuhada](귀하다)
 [cumok'un](규모꾼)
 [cyul](궂)
 [kikilp^he](그글피)
 [kinne, kinnə](그네)
 [kinnet'üda](그네뛰다)
 [kinnəcul](그네줄)
 [kiryəsə](그래서)
 [kiriyu](그래요)
 [kirenik'e, kink'e](그러니까)

[kireda](그리다)
 [kiramɪn](그려면)
 [kilgəmoɪda](그려모으다)
 [kirək^hagu](그려하고)
 [kindi](그런데)
 [kirak ʔk'a](그럴까)
 [kiramyu](그럼요)
 [kirik^hi, kirik^he](그렇게)
 [kirank'e](그렇게 하나까)
 [kirət^hya](그렇다)
 [kic^hanə](그렇지 않아)
 [korubɛgi](그루터기)
 [kirik ʔ](그릇)
 [killi](그리로)
 [koman](그만)
 [k'isillida](그슬리다)
 [k'i:rim, k'irim](그을음)
 [kicək'i](그저께)
 [kic'ak ʔ](그쪽)
 [kik ʔc'ɛŋi, k'ik ʔc'iŋi](극쟁이)
 [kilp^he](글피)
 [kip^hi](급히)
 [kisəra](긋어라)
 [cidarat^ha](기다랗다)
 [ciduŋ](기둥)
 [cirəgi](기러기)
 [killinda](기르다)
 [cirim](기름)
 [kimək^hida](기막히다)
 [cimi](기미)
 [cisulca](기술자)
 [cisiraŋmul](기스락물)
 [cisilgi](기슬기)

[kisiɭ](기슭)
 [cisim](기심)
 [ciəi](기어이)
 [ciwa](기와)
 [ciwacip˚](기와집)
 [ciulda](기울다)
 [c'iut˚c'iut˚](기웃기웃)
 [cicaŋ](기장(長))
 [kicəgi, kicəgu](기저귀)
 [cicige](가지개)
 [cincinnal](긴긴날)
 [cincinhe](긴긴해)
 [cinmal](긴말)
 [cinsasəl](긴사설)
 [cinsori](긴소리)
 [cilda](((물을) 길다)
 [cil](길)
 [cilgasi](길가에)
 [cilgəri](길거리)
 [cilda](길다)
 [cilmok˚](길목)
 [cils'am](길쌈)
 [cim](김)
 [cimməda](김매다)
 [cimc^hi, c'anci](김치)
 [cida](깎다)
 [cit˚](깃)
 [cip˚t'a](깎다)
 [k'et'ak^hamyən](까닥하면)
 [k'amagi, k'amagu](까마귀)
 [k'abulluda](까불다)
 [k'acaŋ](까지)
 [k'ak˚t'igi, k'ak˚t'egi](깍두기)

[k'ambegi, k'ambigi](깜부기)
 [k'wɛ](깨)
 [k'ɛk'asi](깨끗이)
 [k'ək'uru](꺼꾸로)
 [k'inəda](꺼내다)
 [k'əmək˚](꺼멧다)
 [k'ək˚digi](껍데기)
 [k'əp˚c'ul](껍질)
 [k'öda](꼬다)
 [k'orəŋi](꼬리)
 [k'odan](꽃안)
 [k'ot˚p'at˚](꽃밭)
 [k'onboŋori](꽃봉오리)
 [k'oc^hi, k'osi](꽃이)
 [k'waru](꽈리)
 [k'wɛŋmɛgi, k'ɛŋmɛgi](팽과리)
 [k'ebyəŋ](피병)
 [k'uremi](꾸러미)
 [k'wemi](꾸미)
 [k'eda](꺾다)
 [k'irida](꺾이다)
 [k'isi, k'it^həri](끝)
 [c'iri](끼리)
 [c'ik^hɛya](끼해야)
 [nonadallada](나누다)
 [s'odanida](나다니다)
 [nallinda](나르다)
 [namuk'ɛ](나막신)
 [namgu](나무)
 [nəmul](나물)
 [nabəŋi](나방)
 [nasini](낮으니)
 [nandi](나인데)

[yacujɐ](나중에)
 [nahantʰi](나한테)
 [nakːsatːmul](낙숫물)
 [nalləga](날다)
 [sanɕai, məsimɛ](남자아이)
 [nɛmpʰyən](남편)
 [nasinkyə](낫다)
 [naci](낫에)
 [nasin, nacʰin](낫은)
 [nasi, nacʰi](낫이)
 [natːtʰandyal](낭다)
 [nekʰə](내 것)
 [nɛryəwasəru](내려와서)
 [nɛbitwəra](내버려두다)
 [nɛpʰirida](내버리다)
 [nyal](내일)
 [nasʰiŋgɛ](냉이)
 [nicipː](너의 집)
 [niy, ni](너희)
 [nidil, nidəl](너희들)
 [nikːcan](넉잔)
 [nil](넌)
 [nəpːcəkːtari](넙적다리)
 [nɛŋgyə](넘겨)
 [nɛŋgida](넘기다)
 [nitʰa](넙다)
 [ni](네)
 [nigɛ](네 개)
 [niga](네가)
 [nitː](넷)
 [noniŋguna](노는구나)
 [nödoŋ](노동)
 [nonɛgi](노래기)

[norinca, norance](노른자위)
 [nol](노을)
 [nogida](녹이다)
 [nim](놈)
 [nopː](놉)
 [nöpʰida](높이다)
 [nokʰu](놓고)
 [ncʰi](놓지)
 [nuy](누나)
 [nudegi](누더기)
 [nuruŋgɛŋi](누룽지)
 [nuybiibul](누비이불)
 [nüe](누에)
 [nabɛŋi](누에나방)
 [nunkʰopː](눈곱)
 [nuntʰukʰəŋ](눈두덩)
 [nü, nuy](누)
 [nikːsʰin](늘썌)
 [nikːtʰa](늪다)
 [tʰakipʰada](다급하다)
 [tɛnida](다니다)
 [tadimi](다듬이)
 [tadimicil](다듬이질)
 [tadimitʰol](다듬잇돌)
 [taramci](다람쥐)
 [tarakʰi](다래끼)
 [taru](다리)
 [tɛrimi](다리미)
 [oadil](다섯아들)
 [tosilbi](다슬기)
 [tʰandanhada](단단하다)
 [talgal](달걀)
 [tallə](달라)

[tarɛ](달래)
 [talmul](달무리)
 [takː](닭)
 [takːt'oŋ](닭똥)
 [tɛgi](닭이)
 [tagɛ](닭에)
 [tagil](닭을)
 [takːcipː](닭집)
 [takːtʰəɭ](닭털)
 [talbungətː](닭은 것)
 [tambe](담배)
 [tambət'ɛ](담뱃대)
 [tamp'erakː](담벼락)
 [cɛnnim](대님)
 [tɛcaŋk'an](대장간)
 [tirəwə](더러워)
 [t'əncida](던지다)
 [tilməkːt'a](덜먹다)
 [tembida](덤비다)
 [təpːs'ikː](덥썩)
 [nəŋkʰul](덩굴)
 [tiŋcʰil](덩치)
 [tətː](덧)
 [ti](-데)
 [tida](테다)
 [tirigu](테리고)
 [tocʰi, tokʰi](도끼)
 [t'oraŋ, t'olgaŋ](도랑)
 [teryənnim, töryənnim](도련님)
 [torok'ɛ](도래개)
 [tolmɛŋi](돌)
 [tolcəgi, tolc'ulgi](돌쩌귀)
 [tombu](돔보)

[t'öŋgiremi, t'enggiremi](동그라미)
 [toŋsaŋ](동생)
 [toyaci](돼지)
 [twɛciulgan, twɛciul](돼지우리)
 [tuk'ebi](두꺼비)
 [tudegi](두더지)
 [tudiregi](두드리기)
 [tureŋi, turiŋi](두령이)
 [tʰaribakː](두레박)
 [turumɛgi](두루마기)
 [idim](두벌)
 [sodom](두엄)
 [tuŋguməkː](둥구미)
 [t'uŋgilt'uŋgil](둥글둥글)
 [ti](뒤)
 [tik'an](뒤간)
 [tik'ətʰi](뒤결에)
 [tuci, 샤차](뒤지)
 [ticida](뒤지다)
 [tiŋgilda](뒹굴다)
 [tirida](드리다)
 [tik'isiltʰa](듣기 싫다)
 [təl](-들)
 [tilk'wɛ](들깨)
 [tirənwəsə](들어놓다)
 [tiŋce, tiŋge](등겨)
 [tidip'aja](디딜방아)
 [timilda](디밀다)
 [t'at'asi](따뜻이)
 [t'isida](따뜻하다)
 [t'arut'aru](따로따로)
 [t'akːt'aguri](딱다구리)
 [k'əlt'igi](딸국질)

[t'algi, t'algu](딸기)
 [t'amt'igi](땀띠)
 [s'erida](때리다)
 [t'emi](때문에)
 [t'ək^hagu](떡하고)
 [t'ip[~]t'a](뿔다)
 [t'obari, t'oŋari](또아리)
 [t'ɛgi](꽤기)
 [t'uk'e](뚜껑)
 [t^hugari, t^hukpɛgi](툑배기)
 [t'ida](뛰다)
 [t'ik'yə](뜨겨)
 [t'ilp^haŋ](뜰)
 [t'imbegi, t'ibigi](뜸부기)
 [mɛdi](마디)
 [maro](마루)
 [mallinda](마르다)
 [masil](마을)
 [mam](마음)
 [maun](마흔)
 [mak[~]t'ɛgi](막대)
 [mak[~]t'üŋi](막둥이)
 [mɛnnal](만날)
 [mɛndɪlda](만들다)
 [maŋk^hu](맏고)
 [manin](맏은)
 [mat^hyəŋ](만형)
 [mals'im](말씀)
 [macingyə](맞다)
 [mɛk'ida](말기다)
 [mɛndɪrɛmi](맨드라미)
 [mərɪbinul](머리비듬)
 [məsim](머슴)

[məsimsari](머슴살이)
 [məŋnya](먹느냐)
 [məgiya](먹어야)
 [megida](먹이다)
 [monci, mondegi](먼지)
 [migi](메기)
 [migu](메다)
 [met'egi](메뚜기)
 [mömil](메밀)
 [mebe](메벼)
 [miuda](메우다)
 [minda](멘다)
 [menuri, minuri](머느리)
 [mec^hil](머칠)
 [mensəgi](면서기)
 [mencan](면장)
 [meric^hi](멀치)
 [met^hɛ](멧해)
 [meŋil](명일)
 [meŋci](명주)
 [meŋt^hɛ](명태)
 [mogɛ](모과)
 [mose](모래)
 [mori](모레)
 [məru](모루)
 [mollinda](모르다)
 [mosip[~]](모습)
 [modigyəduda](모아두다)
 [monyaŋ](모양)
 [mosi](모이)
 [moŋcori](모조리)
 [mocida](모질다)
 [mot^hüŋi, mot^hɛŋi](모통이)

[mogaci](목)
 [mok˘sim](목숨)
 [moyok˘, mok'an](목욕)
 [mok˘](몫)
 [mullə](몰라)
 [momt'eŋi](몸)
 [mut˘s'ə](못썰)
 [moc'ari](못자리)
 [moŋdöŋi, moŋdeŋi](몽둥이)
 [moyc'ari, moc'ari](뿔자리)
 [moy](묘)
 [musu](무)
 [murip˘ak˘, muribul](무릎)
 [misəp˘t'a](무섭다)
 [musin](무슨)
 [mwə, mə](무엇)
 [mwəllu](무엇으로)
 [mwəsi](무엇이)
 [mwəsiə](무엇이어)
 [mundeŋi](문둥이)
 [mulp'uri, p'alp'uri](물부리)
 [meragumyən](뭐라고 하면)
 [məhɛyu](뭐해요)
 [mik'urəmi, mik'uramci](미꾸라지)
 [midaci](미닫이)
 [myək'amt'a](미역감다)
 [minmulgögi](민물고기)
 [milciul](밀기울)
 [mit˘i](밑에)
 [misi](밑을)
 [pagac˘i](바가지)
 [poguri](바구니)
 [pagimi, pagemi](바구미)

[pɛk'at˘](바깥)
 [panilgi](바늘귀)
 [pau, pauy](바위)
 [pak˘huy, pak˘u](바퀴)
 [pak˘c'i](박쥐)
 [pɛk'at˘i](밖에)
 [pandasi](반듯이)
 [p'andit˘ada](반듯하다)
 [pəncik'irək˘](반짇그릇)
 [kəŋgəni](반찬)
 [palgup˘t˘iŋi](발굽)
 [palcil](발길)
 [palt'a, pap˘t'a](발다)
 [papcomhya](밥 줌 해)
 [pap˘k'ori](밥고리)
 [pap˘k'irək˘](밥그릇)
 [paŋgu](방귀)
 [paŋak'oŋi](방앗공이)
 [pat˘i](밭에)
 [paɪl](밭을)
 [pannil](밭일)
 [korɛŋ](밭고랑)
 [pat˘t'uk˘](밭둑)
 [p'ɛk'op˘](배꼽)
 [pɛyaŋ](배웅)
 [pɛc˘a](배추)
 [hinmuri, hinmuri](백설기)
 [pɛgən](백원)
 [piam, pyam](뱀)
 [pərici](버리지)
 [nɛbigu](버리고)
 [pəcim, pədim](버짐)
 [pəndigɛ](번개)

[pəndigi](번 데기)
 [pəl](벌)
 [pəlgəci](벌레)
 [pals'ə, palse](벌써)
 [kimc^ho](벌초)
 [pɐpː](법)
 [pɛk'ida](벗기다)
 [pəgɛ, pyəgɛ](베게)
 [p'eginda](베긴다)
 [pida](베다)
 [pɛ](벼)
 [perakː](벼락)
 [pyəraŋi](벼랑)
 [peru](벼루)
 [p'erukː](벼룩)
 [perida](벼리다)
 [pesil](벼슬)
 [pɛhult^hi](벼훤이)
 [perakːp'akː](벽)
 [pendək, pindəkː](변덕)
 [penpenc^hi](변변치)
 [penso](변소)
 [pɛl, pil](별)
 [pellu](별로)
 [pɛlmi](별미)
 [pɛlsu](별수)
 [pɛlil](별일)
 [pɛs'i, s'innarakː](별씨)
 [pɛtːk'ari, pɛtːt'əmi](벧가리)
 [pɛtːt'an](벧단)
 [pɛŋsin, piŋsin](병신)
 [p'ɛŋari](병아리)
 [p^hyəŋp^huŋ](병풍)

[pigisilt^ha, pegisilt^ha](보기 싫다)
 [pone](보늬)
 [posipː](보습)
 [pidirya](보이다)
 [pɔkːsaŋ](복숭아)
 [p'ən](본(本))
 [p'ənt'ida](본뜨다)
 [pəncən](본전)
 [pɔlt'ɛgi](불)
 [pɔtːt'ol](붓도랑)
 [pullinda](부르다)
 [pulsapː](부삽)
 [pusirəm, pusulmækː](부스럼)
 [p'usinda](부신다)
 [pwəkː](부엌)
 [pɔlcətːk'ɛ](부젓가락)
 [pucuk'ɛŋi, pucut'ɛŋi](부지깥이)
 [cəŋguci](부추)
 [punmɛŋhi](분명히)
 [pulguda](불리다)
 [purəls'əra](불을 켜라)
 [pinson](빈손)
 [picim, pinul](비듬)
 [piru](비료)
 [picyə](비치어)
 [pial](비탈)
 [pyaŋgi](비행기)
 [pitːc'ari](빗자루)
 [p'allihya](빨리해)
 [p'am, p'ɛmt'ɛgi](뽕)
 [p'ɛda](뽕다)
 [p'əŋnamu](뽕나무)
 [p'öc'ok^hada, p'ec'uk^hada](뽕죽하다)

[p'uriŋi](뿌리)
 [p'ilgu](빨기)
 [segi^hari](사금파리)
 [sedari](사닥다리)
 [sareŋ](사람)
 [sallida](사르다)
 [samaguy, samagu](사마귀)
 [sau](사위)
 [sac^hun](사춘)
 [sak^ːciŋi](삭정이)
 [sandŋsəŋi](산마루)
 [sanp'o](산보)
 [sirəŋ](살강)
 [saldeŋi](살덩이)
 [salət^ːs'imun](살았으면)
 [salgagi](살쟁이)
 [sehyəŋce](삼형제)
 [samc^hun](삼촌)
 [seŋk^hida](삼키다)
 [sant^hemi](삼태기)
 [s'ap^ːs'ari](삼살개)
 [saŋuri](상수리)
 [saŋc^hi](상추)
 [sannek'i, sanek'i](새끼)
 [sedak^ː](새댁)
 [sebok^ː](새벽)
 [sebuk^ːp'ap^ː](새벽밥)
 [syak^ːs'i](새색시)
 [sealsimi, sialsemi](새알심)
 [sebeŋi](새우)
 [syam, siam](쌈)
 [s'ek'are](서까래)
 [p'edaci](서랍)

[sirəp^ːt'a](서럽다)
 [səru](서로)
 [səmo](서모)
 [sisan](서산)
 [sicok^ː](서족)
 [sok'ɛ](서캐)
 [sip^hilda](서툴다)
 [sik^ːnyəŋ](석냥)
 [sik^ːt'al](석달)
 [sidö](석되)
 [cək^ːsö](석쇠)
 [sin](선)
 [sənsaŋ](선생)
 [sit'al](선달)
 [sil](설)
 [sərin](설혼)
 [semgida](섬기다)
 [siŋ](성)
 [s'iŋneda](성내다)
 [sigɛ, sige](세계)
 [s'eda, sida](세다)
 [sibɛ](세배)
 [sisəŋ](세상)
 [sisu](세수)
 [sic^hi](세치)
 [sim](쌈)
 [sit^ː](셋)
 [sögögi, segegi](소고기)
 [sogimceŋi](소금쟁이)
 [sok'op^ːcaŋnan](소꿉질)
 [s'onɛgi, s'onak^ːp'i](소나기)
 [soyt'oŋ](쇠똥)
 [söcu, secu, s'ecu](소주)

[sok^hudɛmi](소코리)
 [koncə](속겨)
 [sögida, segida](속이다)
 [sonk'orakː](손가락)
 [solk'aru, solk'aci](술가리)
 [solgɛmi](술개)
 [sonɟɛri](송사리)
 [söŋp^hyən, seŋp^hyən](송편)
 [sosi, soc^hi](술이)
 [sosil, soc^hil](술을)
 [sot^hida](술에다)
 [sodü](술 위)
 [sotːt'uk'əŋ](술뚜껑)
 [se, sö](쇠)
 [sök'oc^hɛŋi](쇠꼬챙이)
 [söd'əŋi, set'əŋi](쇠덩이)
 [sesori](쇠소리)
 [sosiraŋ](쇠스랑)
 [socukː](쇠죽)
 [s'usu](수수)
 [siyəm, suyyəm](수염)
 [suk'al](수저)
 [sucibi](수제비)
 [suk'ay](수캐)
 [sut^hakː](수탉)
 [s'uktəks'uktək](숙덕숙덕)
 [sügida](숙이다)
 [simuk'a](숨을까)
 [sus'e](숫쇠)
 [suɟnim](승냥)
 [sida](쉬다)
 [sik'allida](쉬슬다)
 [sinbapː](섶밥)

[sipːt'a](쉽다)
 [sinim](스님)
 [simunal](스무날)
 [silgiməni](슬그머니)
 [silgimsilgim](슬금슬금)
 [silgiropːt'a](슬기롭다)
 [silsil](슬슬)
 [silcəkː](슬적)
 [silp^hida](슬프다)
 [sipkwan](습관)
 [sinu, sinü](시누이)
 [sidonɟaŋ](시동생)
 [s'irɛgi](시래기)
 [silgəŋ](시렁)
 [syəməni](시어머니)
 [simbal](신발)
 [sinyuŋ](신용)
 [s'illuks'illuk](실록실록)
 [silci](실제)
 [simbaram](심부름)
 [simsil](심술)
 [simi](심히)
 [s'alɟiŋgi](쌀겨)
 [s'acaŋsa](쌀장수)
 [s'ire](씨레)
 [s'ilda](썰다)
 [s'wɛkː](썰기)
 [sida](쓰다)
 [s'irəcida](쓰러지다)
 [s'ilgɛ](쓸개)
 [s'ilə](쓸어)
 [s'ildeipːnin](쓸데없는)
 [s'ils'ilhada](쓸쓸하다)

[s'imbagi, s'imbagu](쌈바귀)
 [s'irəm](씨름)
 [agɛmi](아가미)
 [aguŋci, korɛgunyəkː](아궁이)
 [agubɛ](아그배)
 [kaksi](아내)
 [aniŋga](아는가)
 [adəl](아들)
 [abici](아버지)
 [ɛbi](아비)
 [arisigo](아시고)
 [asuboda](아우보다)
 [aː](아이)
 [aciməni](아주머니)
 [acirɛŋi](아지랑이)
 [acəkː](아직)
 [acʰigi](아침에)
 [aire](아흐레)
 [ahagu](안 하고)
 [ɛŋgida](안기다)
 [amkʰoɛŋi, amkʰwɛŋi](암고양이)
 [amnɪm](암놈)
 [amnimi](암소)
 [amse](암쇠)
 [apʰiganda](앞에 간다)
 [cʰobəl, asi](애벌)
 [cicʰəŋgu](야단)
 [nyanban](양반)
 [yanɕ'akː](양쪽)
 [wəno](어느)
 [əninal](어느날)
 [wədi](어디)
 [wəllu](어디로)

[wəc'ən, wət'in](어떤)
 [wətʰikʰi, wəcʰige](어떻게)
 [əlɣemi](어래미)
 [irin](어른)
 [əməi, əmini](어머니)
 [emi](어미)
 [əsəlpʰin](어설픈)
 [wəsuruk](어수룩)
 [wəc'alsu](어절수)
 [wəce](어제)
 [əc'əndya](어쩔대)
 [wəc'ɛ](어찌)
 [əksida](억세다)
 [əɣəci](억지)
 [wənce](언제)
 [əncʰɛŋi](언청이)
 [itː'a](언다)
 [yəncasa](얼레)
 [əlɣibitː](얼레빗)
 [wəlme](얼마)
 [k'ebyəŋ](엄살)
 [epʰida](엎히다)
 [ipgo, upgu](없고)
 [ipsə, upsə](없어)
 [iŋdeŋi, paŋdiŋi](엥덩이)
 [yəgi](여기)
 [yədɔŋsaŋ](여동생)
 [idirim](여드름)
 [yəsʉ](여우)
 [yəcəkː](여직)
 [yi:cʰi](여치)
 [yəcəkːc'i](여태껏)
 [epʰenne](여편네)

[yənsipː](연습)
 [yəlse](열쇠)
 [yərɪl](열흘)
 [yəmsɛŋi](염소)
 [yəmcʰe](염치)
 [yətːcʰilgim](엿기름)
 [epʰida, ipʰida](예쁘다)
 [yennal](옛날)
 [ogənnya](오겟느냐)
 [ogimcɛŋi](오금)
 [ongel](오니까)
 [odolge](오디)
 [ollida](오르다)
 [oyənsɔn](오른손)
 [oisobɛgi](오이소박이)
 [ocʰanci](오이지)
 [oksigi](옥수수)
 [olgɛmi](올가미)
 [olbɛru](올바로)
 [olbe](올벼)
 [ori](올해)
 [öŋgida](옴기다)
 [orɪnmal](옳은 말)
 [waŋcə, wɛŋge](왕겨)
 [oygatːcʰipː](외갓집)
 [oyda](외다)
 [osamcʰun](외삼촌)
 [oadil](외아들)
 [oyanŋan](외양간)
 [enson, oncak](왼손)
 [encʰokː](왼쪽)
 [yose](요즈음)
 [yonguse](옴마름)

[ulgəŋi](우렁이)
 [uridəl](우리들)
 [usiri](우수리)
 [ultʰari](올타리)
 [udirin](웃어른)
 [usim](웃음)
 [iŋdiŋi](웅덩이)
 [ömmankʰim](웬만큼)
 [uy](위에)
 [utːmal](윗말)
 [yusin, yucʰin](웃은)
 [yusi, yucʰi](웃이)
 [ikʰeda](으깨다)
 [ine](은혜)
 [imsəkː](음식)
 [iybokː](의복)
 [ikʰicʰida](이끼끼다)
 [inim](이놈)
 [iradən](이러던)
 [irəndida](이런 곳에)
 [irəkʰagu](이렇게 하고)
 [isilbi](이슬비)
 [yɛgi](이야기)
 [isəra](이어라)
 [yəŋ, yin](이영)
 [iuci](이웃)
 [incan](이제)
 [icəkːci](이제껏)
 [icʰakː](이쪽)
 [ica](인제)
 [ipʰərida](잃어버리다)
 [immatː](입맛)
 [ipːsəl](입술)

[isəra](잇어라)
 [is'ɪŋk'e](있는데)
 [ip˘sagi](입사귀)
 [ciycip˘](자기집)
 [tək'u](자꾸)
 [oya](자두)
 [c'aru](자루)
 [c'allinda](자르다)
 [camulse](자물쇠)
 [casi](자세히)
 [casək˘](자식)
 [cacangu](자전거)
 [cak˘t'egi](작대기)
 [c'anguda](잡그다)
 [cambəŋi](잠방이)
 [capsigusə](잡수고서)
 [cəp˘ida](잡히다)
 [caŋge](장가)
 [kondubəlle](장구벌레)
 [cəŋk'i](장끼)
 [caŋk'waŋ](장독대)
 [caŋcək˘](장작)
 [cabəŋp˘il](재봉틀)
 [cəc˘igi](재채기)
 [cəguri](저고리)
 [cəgi](저기)
 [cəsəra](저어라)
 [cəc'ak˘](저쪽)
 [cəycip˘, cicip˘](저희집)
 [c'ik˘t'a](적다)
 [cingi](전기)
 [cinhwa](전화)
 [togut˘oŋ, cəlgut˘oŋ](절구)

[togut˘əŋi, cəlgut˘əŋi](절구공이)
 [cəmt'a](끓다)
 [cimsin, cəmsin](점심)
 [cəsini](젓으니)
 [cəŋgəŋi](정강이)
 [ciŋmal](정말)
 [ciŋsigiru](정식으로)
 [ciŋs'i](정씨)
 [cəsi, cəci](젓이)
 [cəsil, cəcil](젓을)
 [ciga](제가)
 [cibal](제발)
 [cisa](제사)
 [cisu](제수)
 [cel, cil](제일)
 [sisik˘](조)
 [c'ogak˘](조각)
 [c'ogiman, c'ögiman](조그만)
 [c'ögim, c'ek'im](조금)
 [coreŋi](조리)
 [corəm](줄음)
 [cöŋi](종이)
 [coa](좋아)
 [cwayəgan](좌우간)
 [coy](죄)
 [ciamciam](죄암죄암)
 [cudüŋi, cudeŋi, cudiŋi](주둥이)
 [poŋc˘aŋ](주머니)
 [cüme, cume](주며)
 [cüin, cün](주인)
 [cügida](죽이다)
 [cusəra](줍어라)
 [cibulnori](쥐불놀이)

[cikˈkʰu](즉후)
 [cilgəpˈtʰa](즐겁다)
 [ciŋmyəŋ](증명)
 [cikʰim](지금은)
 [ciniremi](지느러미)
 [cireŋi, ciriŋi](지렁이)
 [cʰirinnɛ](지린내)
 [cibəŋ](지붕)
 [cicəgi](지저귀)
 [cindigi](진드기)
 [cindenmul](진딧물)
 [capsətˈsyu](잡수셨어요)
 [cilgeŋi, cilgiŋi](질경이)
 [cʰipˈkʰe, cʰikʰɛ](집게)
 [cipsigi](집새기)
 [cisini](짓으니)
 [ciŋgɪrakʰɛ](징그렇게)
 [cipsigi](짚신)
 [cʰakˈ](쭉)
 [cʰillinda](찌르다)
 [cʰisə](찢어)
 [cʰɛgokˈcʰɛgokˈ](차곡차곡)
 [cʰɛrida](차리다)
 [cʰacʰom](차츰)
 [cʰaŋkʰwɛ](참깨)
 [cʰaŋsɛgi](창자)
 [cʰɛŋpʰihada](창피하다)
 [cʰəməɛ](처마)
 [cʰəm](처음)
 [mama](천연두)
 [cʰəlɕʰukˈ](철쭉)
 [cʰopˈpʰul](춧불)
 [cʰuptəndi](춡던데)

[cʰicikˈ](취직)
 [cʰimɛ](치마)
 [cʰigil](침을)
 [cʰige](침에)
 [kʰəlle](컬레)
 [kʰosʰiyəm](콧수염)
 [cʰi](키)
 [tʰɛgacigu](태워가지고)
 [tʰəgəri](턱)
 [tʰökʰi, tʰekʰi](토끼)
 [tʰecʰim](퇴침)
 [tʰida](튀다)
 [tʰipapˈ](튀밥)
 [getʰirəm](트럼)
 [tʰikˈberi](특별히)
 [pʰasi, pʰacʰi](팔이)
 [pʰasil, pʰacʰil](팔을)
 [pʰɛŋi](팽이)
 [pʰenci](편지)
 [pʰyəŋsaŋ](평생)
 [pʰögi, pʰegi](포기)
 [pʰədɛgi](포대기)
 [pʰö, pʰɛ](표)
 [pʰuŋgu, pulmu](폴무)
 [pʰulpʰi](폴비)
 [pʰiremi](피라미)
 [tʰirɛme](하기 때문에)
 [hənindi](하는데)
 [həya](하야)
 [hadiredo](하드라도)
 [haro](하러)
 [hamənin](하면)
 [hɛkʰyo](학교)

[haksəŋ](학생)
 [c^hohakː, harugəri](학질)
 [hank^haciya](한가지여)
 [həndagu](한다고)
 [hansim](한숨)
 [həllamin](할려면)
 [halməm, halməŋgu](할머니)
 [tanci](항아리)
 [hyəgacigu](해가지고)
 [həgyərim](해거름)
 [həmʌl](해무리)
 [hebaregi](해바라기)
 [səŋgyo](향교)
 [saŋbul](향불)
 [hərik'in](허리띠)
 [hisil](허실)
 [hinmulgən](헌물건)
 [hinbəpː](헌법)
 [hincipː](헌집)
 [him](힘)
 [himhada](힘하다)
 [hiŋgəpː](형겉)
 [hiarida, siarida](헤아리다)
 [hiəm, syəm](헤엄)
 [sip^huda](헤프다)
 [sə](혀)
 [səp'adəkː](혀바닥)
 [səŋ](형)
 [səŋnim](형님)
 [səŋse](형세)
 [səŋsu](형수)
 [səŋp^hyən](형편)
 [hodo](호두)

[horəŋi](호랑이)
 [homeŋi](호미)
 [horɛbi](홀아비)
 [horemi](홀어미)
 [hoŋsu](홍시)
 [honyəkː](홍역)
 [hwaru, hwari](화로)
 [hwarup'ul, hwarip'ul](화롯불)
 [hakː](확)
 [hangapː](환갑)
 [sunim](황소)
 [hoy](회(회충))
 [hoyoribaram](회오리바람)
 [hoiy](회의)
 [sogwa](효과)
 [soryəkː](효력)
 [soca](효자)
 [huhi](후하게)
 [hebaŋ](훼방)
 [hic^həŋhic^həŋ](휘청휘청)
 [süp^haram](휘파람)
 [suci](휴지)
 [suŋnyəŋ](흥년)
 [suŋc^hik^hada](흥측하다)
 [suŋhada](흥하다)
 [sicibuci](흐지부지)
 [higi](흠이)
 [hikːs'on](흠손)
 [hint'əkː](흰떡)
 [hinca](흰자위)
 [sim](힘)
 [simseda](힘세다)
 [simcul](힘줄)